

# 經濟開發과 人口問題

李 正 麟\*

- I. 序 論
- II. 先進國에 있어서의 人口問題의 研究動向
- III. 低開發國에 있어서의 人口問題와 그 對策에 관한 諸見解
- IV. 結 語

## I. 序 論

低開發國에 있어서 經濟開發의 第1의 目標은 工業化이고, 그리고 이 工業化의 推進을 阻害하는 몇 要因중의 하나는 潛在失業(hidden or concealed unemployment)의 大量存在이다. 人口過剩(overpopulation)에 苦惱하고 있는 低開發國에 있어서, 人口問題가 表面的으로 눈에 띄이는 顯在失業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1人當 所得의 減少를 통해서 反映되는 이른바 潛在失業으로 僞裝되는 點에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깊이 留意하여야 될 問題이다. 潛在失業은 一名 僞裝失業(disguised unemployment)이라는 말로도 흔히 使用되지만, 兩者間의 差異는 엄밀히 區別해 둘 必要가 있다. 즉 僞裝失業이라 함은 Robinson의 定義에 의하면, 有效需要의 不足에 입각한 失業이 生産力이 낮은 産業으로 就業을 強要당하는 狀態를 말한다. ① 따라서 景氣가 上昇하여 有效需要가 增加하면 그 모습은 곧 사라지게 될 一時的인 不完全雇用(temporary underemployment)의 狀態이다. 이와같은 狀態는 先進國의 경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低開發國의 潛在失業은 一般的으로 資本, 技術, 資源 등의 不足으로 因하여 低所得雇用을 甘受하고 있는 長期的·構造的인 狀態를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兩者는 同意語로 混用되고 있다. 以下 本論稿에서도 同意語로 使用키로 한다.

經濟開發을 至上目標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와같은 長期的·構造的인 潛在失業을 어떻게 解決할 수 있는 것일까? Samuelson 教授는 低開發國의 經濟開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가지 經濟的 基礎要因의 分析을 主張한다. (1) 人口(population) (2) 自然資源(natural resources)

\* 經濟學科 教授

註 ① J. Robinson, *Essays in the Theory of Employment*, 2nd ed., pp.51~62.

(3) 資本形成(capital formation) (4) 技術(technology)<sup>②</sup> 그리고 첫번째의 人口問題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단지 人口數의 增加만을 가지고는 經濟開發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사실 Malthus 以來의 여러 著者들은, 人口數의 無制限의 增加는 아마도 收穫遞減의 法則(law of diminishing returns)을 招來하고 1人當 生活水準의 向上에 逆行할 것이라 警告하였다. 바로 이것이 問題를 이르킬 수 있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많은 低開發國家가 18~19世紀型의 經濟를 反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醫術의 發達(예컨대, 衛生施設과 오늘날의 값이 싼 DDT에 있어서)은 死亡率을 引下시키고 그리고 出生率은 계속해서 높기 때문에 人口는 급속도로 增加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El Salvador, Java 및 其他 많은 例들은 다음의 두가지 敎訓을 강조한다. 첫째 技術進步에 의하여 可能하게 된 產出高增加의 大部分은 그 數가 倍加된 人口에 消費되어질 것이다. 둘째 現代科學은 食糧增産에 이바지 하는 것 보다 빨리 病을 治療하는데 이바지 함으로, 사람들은 將來에 있어서는 病菌으로 부터의 死亡은 抑制될 수 있으나 食糧不足 때문에 血爭하는 경우처럼, 다만 飢餓로 인한 死亡의 威脅에 直面하게 될 것이다.」<sup>③</sup> 다음에 僞裝失業의 問題에 관하여는, 「이와같은 不完全雇用 및 失業의 問題의 滿足할 만한 解決策은 政府가 人力計劃과 더불어, 비록 인플레이나 國際收支赤字의 問題를 야기시킨다 할지언정 膨脹的인 財政政策이나 通貨政策을 追求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sup>④</sup>

以上的 引用文에서 우리들은 특히 다음의 두가지 點을 留意하여야 된다. 첫째, 많은 低開發國家가 18~19世紀型의 經濟를 反復하고 있다는 것, 둘째, 醫術의 發達로 死亡率은 引下되었으나, 出生率은 계속해서 높기 때문에 人口가 급속도로 增加하고 있다는 것. 첫번째에 관하여 敷衍하면, 低開發國家가 經濟開發을 수행하면서 直面하게 되는 人口問題는 오늘날의 歐美 先進工業國家가 이미 지난날의 開發途에서 봉착하였던 人口問題와 비록 時代와 環境은 相異하다 할지언정 類似性(similarity)을 갖는다고 볼 수 있고, 둘째번에 관하여는, 오늘날의 低開發國은 그 大部分이 이른바 人口轉換(demographic transition)의 前段階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人口轉換이라 함은 經濟開發의 進展 즉 近代化와 더불어 人口의 生物的 變化를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人口移動(migration)이라 함은 經濟開發의 推進과 더불어 人口의 社會的 變化를 말한다. 詳述하면, 人口轉換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人口近代化의 推移를 말한다. 즉 多産・多死型의 傳統社會가 일단 經濟的 離陸(economic take-off)을 開始하면, 먼저 死亡率이 低下하기 시작하므로 人口의 動向은 多産・少死型으로 變化하고 따라서 人口는

註 ② P.A. Samuelson, *Economics*, 8th ed., p. 751.

③ *Ibid.*, pp. 751~2

④ *Ibid.*, p. 752

급속도로 增大한다. 過去の 西歐 諸國은 19世紀 中葉까지는 이와같은 段階를 經驗하였었는데 그 當時는 다행히 新大陸進出에의 길이 열려 있었으므로, 增加된 西歐의 人口는 太西洋을 건너 新大陸을 開拓해 갔던 것이다. 그以後 19世紀 後半期에 이르러 사람들은 經濟의 持續的 發展에 따르는 生活水準의 向上에 의하여 지금까지의 死亡率低下에 발맞추어 出生力을 抑制하게 되었으므로 産兒率이 減退하고 人口는 少産・少死型으로 變化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狀態가 西歐 諸國이 19世紀 後半부터 20世紀 初葉에 걸쳐서 經驗한 人口進化的 推移過程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出生力이 下向으로 變化(fertility decline)하는 轉換點을 「人口轉換」開始의 時期라 한다.

다음에 「人口移動」에 관하여는, 그것이 社會變動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단히 複雜한 樣相을 表示하게 된다. 經濟나 社會가 定常狀態(stationary state, 經濟活動의 全體 즉 生産・交換・分配・消費 등의 活動이 같은 規模, 같은 內容에서 循環的으로 反復되는 狀態를 말함)에 있으면서 人口移動이 발생하면, 그 것은 人口壓力에 의하여 排出되는 移動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一般的으로 人口가 貧困한 農村地域으로부터 排出되어 都市에 흘러가기 때문에 單純한 就業機會를 얻기 위한 移動이라 볼 수 있다(즉 排出型). 따라서 그들은 都市에 移住하여도 低賃金을 甘受하는 生活를 強要받게 된다. 이에 대하여 技術革新(technological innovation)이 實現되고 工業化가 促進될 때에는, 關聯産業을 刺戟하기 때문에 勞動生産性(productivity of labor)이 向上됨과 同時에 雇用機會가 많아져 都市에로 人口를 誘引하는 移動이 期待되게 된다(즉 誘引型). 한걸음 나아가서 工業化를 통해서 社會가 近代化되면, 급속도로 都市化(urbanization)가 促進되고, 農村地域으로부터 人口가 都市에로 集中하여 人口移動이 격심하게 된다.

예컨대, 最近의 우리나라 人口의 移動을 보건대, 大都市 集中現象이 급속하게 進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70年 10月 1일에 施行되었던 人口센서스(census)에 의하면, 서울의 人口는 554만명인데, 이것은 4年前인 1966年의 380만명보다 45.6%가 늘어난 數字이고, 10年前인 1960年의 244만명보다 2배가 훨씬 넘는 數字이다. 같은 센서스에 의하면, 우리나라 들췌 都市인 釜山의 人口는 1966年에 비해 31.5%, 세째번인 大邱의 人口는 27.7%가 각각 늘어나고 있으며, 그 다음이 仁川, 光州, 大田, 全州의 順으로 되어 都市의 規模가 작을수록 人口의 增加率도 줄어들고 있다. 한편 農村은 一般的으로 人口가 줄어들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1970年의 全體로서의 農村人口는 1960年의 그 것보다 約 21만명이 增加한 것으로 表示되어 있으나, 全體人口에 대한 比率은 60年의 57%에서 70年의 45.7%로 크게 減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典型的인 農村地域인 忠南北, 全南北, 慶南 등은 絕對數에 있어서도 約 6%가량이나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人口의 移動이 없는 경우의 自然增加率만 하더라도 지난 4년동안에 8%가량이나 增加되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離農現象이 얼마나 격심한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人口의 이와같은 都市集中現象을 두고 곧 經濟發展과 近代化

進展의 反證이라고 肯定的으로 斷定할 수는 없다. 여기에 또 다른 問題點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人口의 移動과 동시에 낮은 生活樣式的 改善, 教育의 普及 등이 이루어져 그 結果 結婚年齡이 引上되고, 出生力이 減少되게 되었다. 最近의 우리나라의 結婚年齡의 引上傾向을 보면 第1表와 같다.

第1表 1955년 및 1960년에 있어서의 平均 結婚年齡

	1 9 5 5			1 9 6 0		
	Both Sexes	Male	Female	Both Sexes	Male	Female
Korea	22.3	24.6	20.5	24.2	26.4	22.6
Urban	23.4	25.4	21.5	25.6	27.7	23.8
Rural	22.0	24.3	20.2	24.0	25.7	22.0

Source: The 1955 and 1960 census reports, Minoru Tachi and Minoru Muramatsu, *Population Problems in the Pacific* 1971, p.28.

이 表에 의하면, 男女의 平均結婚年齡이 都市와 農村에서 모두 引上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男女의 平均結婚年齡이 1955년의 22.3歲로부터 1960년의 24.2歲로 引上되었고, 특히 都市의 경우, 男子는 25.4歲로부터 27.7歲로, 女子는 21.5歲로부터 23.8歲로 引上되었고, 農村의 경우, 男子는 24.3歲로부터 25.7歲로, 女子는 20.2歲로부터 22.0歲로 引上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人口의 自然增加率도 1955~1960期間의 年間增加率 2.9%에서 1960~1965期間에는 2.7%로 減少되었다. (1960~65期間의 年間增加率 2.7%는 同期間의 平均年間出生率 3.7%와 平均年間死亡率 1.0%의 數字에서 算出되었음.)<sup>⑤</sup>

本論稿는 以上에서 言及한 몇가지 問題중에서 다음의 두가지 點, 즉 첫째, 오늘날의 歐美 先進工業國家가 지난 날의 開發途上에서 直面하였던 人口問題와 그 對策의 動向, 둘째, 지금의 低開發國家가 當面하고 있는 人口問題와 그 對策에 관한 諸見解를 高찰함으로써, 開發途上에 있는 우리나라의 人口問題의 基本的 對策을 模索코자 한다.

## II. 先進國에 있어서의 人口問題의 研究動向

人口問題가 深刻한 社會問題로 意識된다는 것은, 그 만큼 그 社會에 經濟的인 困難이 크게 擡頭되어 있다는 證據이다. 歷史적으로 보면, 人口問題에 특별한 關心을 가졌던 時代는 두時代, 즉 19世紀初의 Malthus 時代와 第1次大戰後의 Keynes 時代라 볼 수 있다<sup>⑥</sup>.

西歐社會에서 19世紀初의 Mathus 時代는 프랑스革命(1789年)後에 Napoleon 戰爭이 西歐全域

註 ⑤ M. Tachi and M. Muramatsu, *Population Problems in the Pacific*, 1971, p. 28.

⑥ J. R. Hicks, *The Social Framework, An Introduction to Economics*, 3rd ed., p.51.



에 擴大되고, 한편 英國에서는 產業革命이 進展되어 近代社會로 移行중에 있었던 過渡期的 變革期라 볼 수 있다. 이 時代의 特徵은 무엇보다도 人口增加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는 點이다 (즉 多産・少死型의 人口增加). 이에 대하여 第1次大戰後의 Keynes 時代는 不景氣가 慢性化하여 資本主義經濟가 그것을 克服하지 않으면 안될 一大 試練期에 處하여던 것으로, 人口問題에 관하여는 西歐 諸國의 人口增加가 終末을 告하고, 將次는 도리어 人口減退를 豫想하지 않으면 안될 時代여던 것이다(즉 少産・少死型의 人口增加). 프랑스革命後의 全般的인 社會的 不安, Napoleon 戰爭後의 不況 등은 19世紀初의 西歐社會에서의 經濟的 困難의 原因이 되고 이로 因하여 人口問題에 非常한 關心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이 點은 第1次大戰後의 慢性化된 不景氣로 因하여 人口問題를 社會의 가장 큰 問題로 삼았던 點과 類似性을 가진다. 反面 19世紀初의 Malthus 時代는 近代化 以前의 社會로부터 近代社會에로의 變革期였고, 그리고 人口增加가 급속도로 이루어진 時代였음에 대하여, 第1次大戰後의 Keynes 時代는 위에서 말한 바의 같이, 歐美의 資本主義가 이미 成熟期에 도달하고, 慢性化된 不況에 直面하여 그것을 克服하지 않으면 안될 經濟的 變革期였고, 그리고 人口增加率이 低下하여 將來에는 오히려 人口減退를 豫想하지 않으면 안될 時代였던 點, 이 두가지 點이 바로 두 時代사이의 差異點이라 할 수 있다.

우리들은 먼저 Malthus의 人口에 관한 考察을 간단히 더듬어 보기로 하자. 그의 『人口論』 初版(1798年)에서는 要旨 다음과 같은 見解를 피력하고 있다.

- 1) 人口의 增加는 必然的으로 그 生存資料에 의하여 制限받는다.
- 2) 生存資料가 增加하는 경우에는 人口는 항상 增加한다.
- 3) 人口增加의 優越한 힘(力)은 窮乏 및 罪惡(misery and vice)에 의하여 抑制되고 그리고 現實의 人口는 이것에 의하여 生存資料와 均衡을 維持하게 된다.<sup>⑦</sup>

그러나 第2版(1803年)에서는 Malthus는 이것을 어느 程度 修正해서, 위의 세가지 命題중 (1)의 命題에 새로운 障害의 要因을 導入하여 다음과 같이 表現하고 있다. 즉 「이들 障害 및 人口의 優越한 힘을 抑壓하여 그 結果를 生活資料와 同一한 水準으로 維持케 할 수 있는 障害는 모두 道德的 抑制, 罪惡 및 窮乏으로 分類할 수 있다.」<sup>⑧</sup>

여기에서 우리들은 Malthus가 人口增加를 抑制하는 要因으로 窮乏과 罪惡외에 道德的 抑制(moral restraint; 一家를 扶養할 能力이 있기까지 結婚을 延期하고 그리고 그 동안에 道德的으로 타락한 生活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를 포함시킨 點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그는 罪

註 ⑦ T.R. Malthus,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as it affects the Future Improvement of Society, with Remarks on the Speculation of Mr. Godwin, M. Condorcet, and other Writers*, 1789, 高野岩三郎・大内兵衛譯 『初版 人口の原理』 1935, pp.30~31.

⑧ T.R. Malthus,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or a View of its Past and Present Effects on Human Happiness: with an Inquiry into our Prospects respecting the Future Removal or Mitigation of the Evils which it occasions*, 1803 寺尾琢磨譯 『マルサス人口論 第6版』 1941, p.23.

惡과 窮乏을 人口增加에 대한 「積極的 障害」(positive checks), 道德的 抑制을 「豫防的 障害」(preventive checks)라 불렀다. 以上과 같이 Malthus는 人口增加의 問題와 罪惡 또는 窮乏이라는 社會的 問題와의 사이에 自然法則에 의한 必然的 關係를 發見하였던 것이다. Malthus의 이와같은 見解는 다음의 두가지 前提위에 展開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人間의 生存에는 食糧이 絶對적으로 必要하다. (2) 男女間의 情慾(passion)은 將來에도 대체로 現狀態를 維持한다.<sup>⑨</sup> 이리하여 Malthus는 窮乏(貧困, 飢餓등)이나 罪惡(戰爭, 殺兒등)은 人口增加와 生存資料의 增殖間의 不均衡의 所産이라 보고 社會制度와는 아무 關係도 없는 따라서 支配階層에는 아무 責任도 없는 말하자면 自然法則의 表示라 說明하였다. 그러므로 窮乏이나 罪惡이 없는 理想社會의 實現 등은 하나의 空想에 不過하다고 結論지었다.

Malthus의 『人口論』은 그 以後 많은 論者들에 의하여, 특히 道德的·이데오로기의 立場에서 非難되고 理論的으로는 獨創성이 없다고 反駁되고 또한 實證的으로도 그 以後의 (즉 産業革命後의) 社會的·經濟的 發展이 Malthus의 豫言과는 달리 生活水準의 向上을 이룩하게 하여 出生率을 低下시키게 되었다. (다만 20世紀後半의 低開發地域에서의 급격한 人口增加와 이에 대한 食糧生産의 增殖과의 不均衡이 各地에 飢餓狀態를 발생시켜 이른바 ‘말사스의 陷穽’ Malthusian trap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염려하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Malthus의 『人口論』은 이를 契機로 하여 人口問題에 대한 從來의 馬坎티리즘(mercantilism)의인 過少人口論(underpopulation theory)으로부터 過剩人口論(overpopulation theory)으로 轉換시키는데 決定的인 役割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Malthus時代의 歷史的 段階는 産業革命을 통해서 資本主義體制가 確立發展을 보게 된 段階로서 勞動問題 특히 過剩勞動의 問題가 社會의 가장 큰 關心事로 되어 이에 對應하는 理論的 體系를 組織化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이것이 그 以後의 人口理論의 基礎가 되었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Ricardo는 Napoleon 戰爭終熄時(1817年)에 Malthus의 이 『人口論』을 自己의 經濟學體系에 導入하여 매우 精巧한 이른바 「리카아도經濟學」을 完成하였다.<sup>⑩</sup>

그 以後, Malthus는 Napoleon 戰爭後의 不況과 이로 인한 失業에 主로 關心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는 그 失業의 原因을 有效需要의 不足에 있다고 主張하였다. 이 點이 Malthus의 「經濟學原理」(1820年)의 中心思想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 얼마前부터 英國에서는 産業革命이 開始되어 工業이 發展하고 그 結果 Napoleon 戰爭後의 失業을 吸收하고 勞動者의 生活를 向上시켜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Malthus의 豫言은 多幸히도 的中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을 契

註 ⑨ T.R. Malthus, *op. cit.*, 1798, 前掲書, 1935 p.12.

⑩ D.Ricardo의 名著 『經濟學 및 課稅의 原理』(*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1817)는 Say의 販路法則에 입각해서 쓰여진 作品으로, 따라서 그것은 有效需要의 原理에 입각해서 쓰여진 Malthus의 『經濟學原理』(*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Considered with a View to Their Practical Application*, 1820)와 比較되어 질 수 있다.

機로 하여 그 後의 經濟學界의 動向은 이른바 「失業의 經濟學」을 究明對象에서 除去하고 대신 完全雇用的 前提위에 精巧를 極한 「리카야도經濟學」이 主流로 되게 되었다. Malthus의 이 「有效需要의 原理」(principle of effective demand)는 1936年 Keynes의 『一般理論』의 出現時까지 約 120年 동안 忘却되어 버렸었다. 이 點에 관하여는 Keynes도 1933년에 「만약에 19世紀의 經濟學의 發展源泉이 Ricardo에 대신하여 Malthus였었다면, 世界는 오늘날 훨씬 賢明하고 富裕한 場所로 되어 있을 것이다」<sup>①</sup>라고 恨歎하였을 程度였었다. 즉 19世紀의 社會는 産業革命에 의하여 救濟되고 한편 經濟學의 潮流는 産業革命 때문에 不幸한 狀態에 直面하게 되었던 것이다.

Malthus가 窮乏과 罪惡의 源泉 및 이것을 克服할 手段에 관해서 그의 見解를 公表하고 이른바 「말사스主義」(Malthusianism)란 것을 樹立한 以來 이미 170年의 歲月이 흘렀다. 그의 理論은 그 동안에 많은 起伏을 經驗하였고, 그 表現도 修正되었지만, 그러나 그 根本理念은 오늘날까지도 아직 큰 影響力을 갖고 있다. 그는 窮乏과 罪惡은 人間이 自然으로 부터 부여된 強力한 增殖傾向(즉 人口 增殖傾向)의 必然的 產物이라 보고 따라서 이 傾向을 阻止하는 以外에는 社會改善의 根本的인 方法은 달리 없다고 하였다. 이 見解에 대하여 지금까지 많은 反論이 提起되었고 또 現在도 提起되고 있다. 그 論爭點을 要約하면 다음의 세가지다.

- 1) 人口의 급격한 增加를 不利하다고 보는 點에서 이 것을 國力增進의 要因이라 보는 國家主義와 正面으로 對立된다.
- 2) 그의 見解는 窮乏과 罪惡을 自然法則(人口原則)의 責任이라 보는 點에서, 이 것을 社會構造의 產物이라 보는 思想과 對立된다.
- 3) 人口抑制을 위한 여러가지 手段은 既成의 宗教敎理나 道德觀念과 相馳된다. 특히 카톨릭시즘(catholicism)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다음에 Keynes의 人口問題에 대한 見解를 살펴보기로 하자. 既述한 바와 같이 世上사람들이 人口問題에 특별한 注意를 기울일 때에는 그 社會에는 이미 全般的으로 經濟的 困難이 充滿되어 있다는 反證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經濟가 繁榮하고 그 繁榮이 계속될 때에는, 사람들의 意識속에서 人口에 대한 關心은 사라진다. 産業革命後 특히 19世紀 後半의 西歐諸國의 經濟的 繁榮이 人口에 대한 關心을 一掃하게 된 것도 當然한 經過라 볼 수 있다. 經濟學의 系譜중에서 오랫동안 經濟學의 중요한 部分을 占하고 있었던 人口問題가 1871년에 刊行된 Jevons의 『經濟學原論』<sup>②</sup>을 契機로 하여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고 특히 Warlas, Pareto 등에 의한 一般均衡理論(general equilibrium theory)<sup>③</sup>의 形成期에는 人口問題는 전혀 考慮對象에서

註 ① J. Keynes, *Essays in Biography*, 1933, p.144.

② W.S. Jevons의 『經濟學原論』(*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871)에서는 人口는 經濟學體系로부터 除去되어 있다. 즉 當時의 사람들의 意識속에서는 人口의 過剩도 過少도 存在치 않고 이른바 「適度人口」(optimum population)라는 虛構物이 하나의 理論으로 登場하고 있었다.

③ L.Warlas는 人口의 總數 및 그 構成, 個人行爲의 動機가 되는 與件을 一定하다 하고, 完全競爭(perfect competition)이 行해질 때에, 하나의 經濟體系속에 成立하는 「經濟均衡」에 관한 均衡條件을 求하는 것을 그의 主要課題로 삼았다.

除外되었다. 經濟의 發展에 수반하는 人口의 增大는 新大陸에 吸收되고 邊境(frontier)이 開拓되어 食糧增産을 이룩하고 西歐의 工業生産物과 新大陸의 食料品과의 交易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와같은 刺戟은 한 걸음 나아가 運輸, 遞信의 分野까지도 開拓하기에 이르렀다. 西歐社會는 보다 많은 勞動力을 必要로 하였으므로 19世紀 後半부터 19世紀 末葉내지 第1次大戰前夜(1914年 8月以前)까지 約 半世紀동안은 人口壓力을 전혀 받지 않는 黃金의 時代(a golden age)였었다. 그러나 第1次大戰前後부터 西歐社會는 매우 甚한 經濟的 不安에 휩쓸려 있었다. Keynes는 그와 같은 不安을 過剩人口에 起因한다 判斷하고<sup>⑭</sup> 그리고 그 過剩人口의 發生原因을 첫째, 19世紀 後半부터 第1次大戰 勃發時까지의 約 半世紀동안 豫想을 上廻하는 人口增加가 있었던 것, 둘째, 20世紀에 들어 와서 收獲遞減의 法則이 作用하기 시작한 것이라 하였다. 이리하여 Keynes는 産兒制限을 提唱하게 되었다.

以上과 같은 Keynes의 見解에 대하여 Beveridge는 이를 反駁하고 「人口過剩」과 「失業」은 別個의 것이므로, 이를 混同하여서는 안된다고 警告하였다. 특히 그는 20世紀에 들어와서 收獲遞減의 法則이 作用하기 시작하였다는 Keynes의 主張을 詳細한 統計에 입각해서 否認하였다. 그러나 그는 問題의 核心인 人口過剩과 失業의 差異點을 究明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sup>⑮</sup>

人口過剩의 現象을 처음으로 正確하게 解明한 者는 Carr-Saunders였다. 그는 人口過剩을 失業과는 區別하여 「1人當 所得의 低下를 통하여 反映되는 狀態」,<sup>⑯</sup> 즉 오늘날의 이른바 「潛在失業」으로 파악하였다. 潛在失業이라 함은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勞働人口의 增加가 이에 比例的인 生産增加를 수반하지 못하는 경우에, 人口의 壓力에 의하여 어떤 産業에 附着하지 않을 수 없는 人口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 産業에 附着하는 勞働人口의 얼마만큼의 部分을 潛在失業으로 보는가는 오로지 「勞働의 限界生産力」(marginal productivity of labor)에 의존한다. 그러나 그는 「失業」에 관하여는 이를 解明하지 못하였고 後에 Keynes에 의하여 비로소 究明되게 되었다. 그 것은 當時를 支配하고 있었던 經濟理論이 完全雇用을 前提로 한 古典學派理論이었으므로 失業의 問題를 理論體系속에 포함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史上未曾有的 不況에 直面해서 從來의 自由放任(laissez-faire)의 自動調節作用으로는 이를 打開할 수는 없었고, 失業 또는 雇用の 問題를 究明對象으로 하는 새로운 經濟理論의 出現을 기다려 비로소 解決되게 되었다.

要約컨대, 第1次大戰 直後인 1919년에 Keynes가 發表한 『平和의 經濟的 歸結』(*The Economic*

註 ⑭ J.M. Keynes,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 1919, p.8. 參考로 그 글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18世紀以前에는 사람들은 거짓된 希望을 갖지 않았다. Malthus는 그 世紀의 末葉에 一般화된 幻想을 一掃하기 위하여 하나의 惡魔을 露出시켰다. 半世紀에 걸친 經濟學의 重要著作의 全部는 이 惡魔로부터 眼(眼)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았다. 그 다음의 半世紀에는 이 惡魔는 쇠사슬(鎖)에 얽매여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들은 또다시 그 惡魔를 解放시켰다.」

⑮ W.H. Beveridge, *Population and Unemployment*, 1923, pp.447~475, 安川正彬, 『人口의 經濟學』 p.30.

⑯ A.M. Carr-Saunders, *Population*, 1925, pp.44~49.

*Consequences of the Peace*)에서는 當時의 人口過剩問題의 解決을 Malthus의 『人口論』에서 그 열쇠를 찾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Beveridge는 反論을 提起하여, 人口過剩과 失業은 別個의 것이므로 混同하여서는 안된다고 警告하였으나 그 差異點은 究明하지 못하였다. 다음에 Carr-Saunders는 Beveridge가 밝히지 못한 人口過剩의 原因을 解明하였으나, 또 다른 問題인 失業에 관하여는 이를 올바르게 究明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失業은 工業化된 經濟에 있어서의 非自發的 失業 involuntary unemploym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1920년대부터 1930년에 걸쳐서 가장 심각한 社會的 不安으로 나타났던 現象이다). 여기에서 Keynes는 그 當時를 代表하고 있었던 Marshall 經濟學에서는 非自發的 失業의 解決策을 期待할 수 없었다. 人口過剩의 解決을 Malthus의 『人口論』에서 求하였던 Keynes는 人口過剩과는 別個의 失業에 관해서도 또 다시 Malthus의 「有效需要의 原理」에서 그 解決의 열쇠를 찾았던 것이다.<sup>⑩</sup>

「供給은 그 스스로의 需要를 創造한다」는 Say의 販路法則(law of markets)은 Napoleon 戰爭後의 失業을 앞에 놓고 그 妥當성이 批判되게 되었다. Malthus는 「豊富중의 貧困」이라는 矛盾된 現象에 關心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富의 계속적인 增大를 保證하기 위하여 「生産과 分配의 均衡」을 力說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一般的으로 生産物의 增大와 價値의 增大는 同時에 進行한다, 그리고 그것은 富의 增大에 매우 適合한 自然的이고 健全한 狀態이다. 生産物의 分量의 增大는 主로 生産力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生産物의 價値의 增大는 生産物의 分配에 의존하고 있다. 生産과 分配은 富의 二大要素로 이 二大要素가 正當한 比率로 結合되기만 한다면, 地上의 富와 人口를 멀지 않아 地上의 可用資源의 最高限度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sup>⑪</sup>고 하였다. 그는 富의 增進을 위하여는 生産과 分配의 均衡, 生産과 消費의 均衡, 供給과 需要의 均衡, 要컨대 生産力의 增進과 有效需要 따라서 價値의 增進과의 併行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維持되는 경우는, 前者 즉 生産力의 增進이 後者 즉 有效需要의 增進에 의존하는 경우라 하였다. 그러므로 Malthus에 있어서는 當時의 不況狀態를 說明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有效需要의 原理」를 必要로 하였던 것이다.

Malthus는 生産增進의 要因으로, (1) 資本蓄積, (2) 土地의 肥沃度, (3) 勞動을 節約하는 發明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이 세가지 要因중에서 가장 重要한 것으로서 (1)의 資本蓄積을 들고 이 資本蓄積에서 不生産의 消費者(unproductive consumer)의 維持의 問題를 分析한다. 여기에서 그는 收入중에서 節約한 分(즉 貯蓄)을 資本에 追加한 것과 不生産의 勞動(unproductive labour)에서 生産的 勞動(productive labour)으로 轉換함으로써 이루어진 資本蓄積은 과연 有效需要를 保證할 수 있는가를 問題로 삼고, 一般的으로 供給過剩의 可能性을 論한다. 즉 資本家 및 地主階層에 의하여 貯蓄에 의한 資本蓄積이 있어도 그들의 需要는 以前

註 ⑩ L.R. Klein, *The Keynesian Revolution*, pp.125~126.

⑪ T.R. Malthu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p.371.

과 變함이 없고, 또 生産의 勞動者도 不生産의 勞動者도 모두 消費者이므로 勞動의 轉換에 의한 資本蓄積이 行해져도 勞動者 全體에 관한 限 消費需要에는 變함이 없다. 그러나 生産의 勞動의 增加에 의한 年生産物의 產出高 즉 供給量은 增大한다. 이와같은 狀態下에서는 資本蓄積의 結果로 增大한 年生産物은 價格의 下落이나 또는 節約(貯蓄)能力의 低下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購買者를 發見하기가 不可能하다.<sup>19</sup> 이와같이 資本蓄積은 Malthus에 있어서는 供給過剩을 招來할 傾向이 있다. 여기에 바로 不生産의 勞動者의 消費의 重要性이 存在한다. 資本家, 地主階層, 生産의 勞動者의 消費만으로는 增大된 生産物을 全部 消費할 수 없기 때문에, 必要한 量의 消費는 必然的으로 不生産의 勞動者에도 求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Malthus는 「……有效需要를 增大시키는 唯一의 方法은 『不生産의 消費』(unproductive consumption)을 높이는 것이다」<sup>20</sup>라고 論하였다. 따라서 그는 資本蓄積에 의한 供給過剩을 警戒하고 그의 이른바 比例主義(doctrine of proportion)에 입각하여, 需要·供給의 均衡이 이루어 지지않는限 富의 增大를 위한 刺戟은 最大限으로는 되지 못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當時의 英國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産業革命의 물결은 점차로 西歐社會의 全體에 擴大되고 있었으므로 눈부신 經濟의 發展은 機械生産力이 勞動力을 驅逐하기는 커녕, 오히려 다른 여러 産業을 刺戟하여 全體로서의 失業者는 급속도로 각 産業에 吸收되어 버렸다'. 그 結果 Malthus의 「有效需要의 原理」는 經濟學者의 關心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既述한 바와 같이 完全雇用을 前提로 하는 「리카아도經濟學」이 發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Malthus의 이름은 『人口論』의 著者로서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有效需要의 原理」의 創始者로서는 忘却되었었다. 120년의 歲月이 冬眠狀態로 經過한 다음에 비로소 Keynes에 의하여 그 重要性이 再發見되게 되었다.

Keynes는 그의 『一般理論』에 있어서 經濟學의 對象을 Malthus와 마찬가지로 國民所得의 實體인 年生産物에 두고, 그 分配가 아니라 年生産物의 生産水準 즉 雇用水準의 決定要因의 究明에 主眼點을 두었다. 그는 1929年 美國에서 發端한 大不況에 의한 資本主義 諸國의 「失業」問題에 큰 關心을 가지고 完全雇用の 諸條件을 求하던서, Malthus가 행한 것과 같은 全體로서의 產出高의 理論을 展開하였다. Keynes의 「有效需要의 原理」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要約할 수 있다. 즉 現實의 國民所得 및 雇用量은 總需要價格(aggregate demand price; 一定의 雇用量으로부터 發生하는 產出量의 販賣에 의하여 獲得된다고 豫想되는 賣上金額을 의미함)과 總供給價格(aggregate supply price; 一定의 雇用量을 誘引하는데 必要한 最少限度의 賣上高를 그 雇用量으로부터 發生하는 產出物의 總供給價格이라 함)이 一致하는 水準에서 決定된다. 그리고 總需要函數(aggregate demand function; 一定의 雇用量  $N$ 과 總需要價格  $D$ 와의 사이에

註 19 T.R. Malthus. *Ibid.*, p.315.

20 B.A. Corry, "Malthus and Keynes—a Reconsideration" *The Economic Journal*, Dec. 1959, p.723.

存在하는 函數關係 즉  $D=f(N)$ 을 말함)와 總供給函數(aggregate supply function; 一定의 雇用量  $N$ 과 總供給價格  $Z$ 와의 사이에 存在하는 函數關係 즉  $Z=\phi(N)$ 을 말함)와의 交叉點에서의 總需要價格이 有效需要로 定義된다.<sup>①</sup> Keynes에 의하면, 雇用量이 增加하면 所得도 增加하지만 所得과 消費과의 差 즉 貯蓄도 또한 增大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貯蓄의 크기는 물론 限界消費性向의 값에 의하여 決定된다. 그러므로 비록 完全雇用水準이 實現되어 있다 할지라도, 投資需要가 그 水準에 있어서의 貯蓄에 一致하든가 또는 그것보다도 크게 되지 않으면 이 水準은 멀지않아 不完全雇用の 水準에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비록 完全雇用に 對應하는 總供給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對應하는 總需要가 반드시 存在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結果적으로 Say의 販路法則을 否定하게 되는 셈이다. Keynes에 의하면, 貯蓄과 投資는 각각 相異한 要因으로 決定되는 것으로 兩者는 完全雇用水準에 있어서의 貯蓄에 一致하는 投資를 保證할만한 程度로 相互依存關係에 있지는 않다고 한다. 貯蓄과 投資의 不一致는 資本主義가 發展해 감에 따라 점점 더 擴大되고, 그리고 資本蓄積의 進行과 더불어 豫想收益의 低下 및 生産性的 向上에 입각한 資本의 限界效率(marginal efficiency of capital)의 遞減이 加一層 促進되고, 한편 利率은 이에 對應할 만큼 充分한 速度로 下落하지는 못하여 그 結果 投資機會는 점점 減少하게 된다. 이와같은 事態는 有效需要의 不足 나아가서 非自發的 失業의 慢性化를 招來하게 된다.

以上과 같이 Keynes는 Malthus의 不完全한 有效需要의 原理를 그의 『一般理論』에서 完全한 理論體系로 構成하였다. Malthus는 有效需要의 不足을 說明함에 있어서, 消費에 대한 貯蓄·投資의 過度한 進行을 注目하면서도 消費需要만으로 形成되는 有效需要의 概念에 執着하였기 때문에 獨立投資(autonomous investment)에 관한 認識을 看過하고, 따라서 投資誘因의 分析은 극히 不充分하였다.

Malthus 經濟學의 復興을 企圖한 Keynes는 같은 有效需要의 不足을 說明하면서도 資本主義經濟가 그 絶頂을 經過함에 따라 投資機會의 狹少化, 따라서 投資에 대한 貯蓄의 過剩現象이 나타남을 問題로 삼고, Malthus의 缺陷 즉 獨立投資의 概念의 缺如를 指摘하였다. 즉 Malthus가 分明히 하지 못한 獨立投資를 導入하여 投資의 概念으로 삼고, 有效需要를 消費需要와 投資需要의 兩者로 構成된다고 하였다.<sup>②</sup> 그리고 이들 決定要因으로서 각각 消費性向, 資本의 限界效率, 流動性選好(liquidity preference=demand for money 즉 貨幣에 대한 需要를 의미함)의 概念을 導入함으로써 有效需要의 原理를 確立하였던 것이다. 거기에서는 Malthus의 理論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雇用 내지 國民所得의 均衡水準決定機構의 分析이 明確하게 되었다.

註 ① J.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pp.23~26.

② J.M. Keynes, *Ibid.*, pp.27~32.

그는 이 原理에 의하여 비로소 1930年代의 「失業」에 관한 說明을 明白히 行할 수 있었다. 그는 有効需要의 不足이 失業의 原因이라 하였고, 그리고 이 不足을 充足시킴에 있어서 投資의 意義를 다시 한번 發見하였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投資는 資本의 限界効率에 의존하고, 그리고 그 크기는 企業家가 품고 있는 將來에 대한 期待에 의존한다. 다음에 企業家의 期待는 (1) 人口增加, (2) 技術進步, (3) 新資源의 發見 등의 動態의 要因에 의하여 決定된다. 따라서 人口增加는 企業家의 期待를 樂觀의으로 하고, 資本의 限界効率을 引上하고, 投資需要 따라서 有効需要를 促進함으로써 雇用問題를 改善하고 經濟發展을 이룩하게 한다. 그러나 人口增加가 한번 停止하고 나면, 資本의 限界効率은 限없이 低下하여 어떠한 對策이 강구되지 않는 限, 減지않아 곧 零(零)가 되어 經濟發展은 停止하게 된다.<sup>㉓</sup>

이리하여 Keynes의 『一般理論』에 있어서는 人口를 經濟發展의 중요한 決定要因으로 보았다. 그것이 더욱 重要한 意義를 갖게 된 것은, 그가 1937년에 行한 講演 「人口減退의 若干의 經濟的 歸結」에서이다. 그는 여기에서 『一般理論』의 長期化를 試圖하고, 人口減退가 經濟的 長期停滯(secular stagnation)에 미치는 影響을 力說하여, 經濟發展의 要因으로서의 「人口」의 意義를 새삼스러이 強調하였다.<sup>㉔</sup>

Keynes에 의하면, 資本需要는 人口(消費者數), 生活水準(消費의 平均水準) 및 資本係數의 세가지 要因에 의존한다고 하다. 여기에서 消費者數를  $P$ , 消費總額을  $Y$ , 資本스톡을  $K$ 라 하면,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이 定式化된다. 즉

$$K = P \cdot \frac{Y}{P} \cdot \frac{K}{Y} \dots \dots \dots (1)$$

여기에서  $\frac{Y}{P}$ 는 生活水準을,  $\frac{K}{Y}$ 는 資本係數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式은 人口  $P$ 가 生活水準  $\frac{Y}{P}$ 와 더불어 消費需要  $Y$ 를 決定하고, 消費需要  $Y$ 는 資本係數  $\frac{K}{Y}$ 에 의하여 資本需要  $K$ 를 決定하는 것을 表示하고 있다. 그런데 發明은 資本需要  $K$ 에 이바지 하지만, 發明이 資本係數  $\frac{K}{Y}$ 에 미치는 效果는 그 時代를 特徵지우는 타일에 의존한다. Keynes에 의하면, 19世紀는 交通·住宅·公共施設의 改善 등 비교적 耐久性이 높은 資本使用的 發明이 풍부하였으므로 資本係數  $\frac{K}{Y}$ 는 높은 水準을 維持하였지만, 近代의 發明은 資本節約의인 타일로 變化하였기 때문에 資本係數는 극히 少量밖에 變化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에 生活水準  $\frac{Y}{P}$ 의 向上에 관해서도 年 1%의 上昇率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1)式에서  $\frac{Y}{P}$ 와  $\frac{K}{Y}$ 는 각각 常數(constant)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式의  $K$ (資本需要)의 값의 決定要因은  $P$ (消費者數)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frac{Y}{P} \cdot \frac{K}{Y}$ 를  $\alpha$ (常數)라 하면 (1)式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 表示할 수 있다.

註 ㉓ J.M. Keynes, *Ibid.*, pp.147~164, p.307.

㉔ J.M. Keynes, *Some Economic Consequences of a Declining Population*, 1937, Reprinted in, "Readings in Economic Analysis vol. 1, General Theory", ed. by R.V. Clemence, 1950, pp.192~6.



$$K = \alpha P \dots\dots\dots (2)$$

따라서 資本需要의 增加分은 投資  $I$  로 되기 때문에 (2)式은 또한 다음과 같이 表示할 수 있다.

$$\Delta K = I = \alpha \Delta P \dots\dots\dots (3)$$

(3)式은 資本需要의 增加가 人口增加에 의존하는 것을 表示하고 있고 만약 人口增加가 停止하거나 減退하게 되면, 그것은 投資需要의 減退를 招來하고, 失業을 發生시키게 됨을 示唆하고 있다.

第2表

	1860年	1913年
實物資本	100	270
人口	100	150
生活水準	100	160
資本係數	100	110

Source; J.M. Keynes, *Ibid.*, pp. 192~6, 安川正杉, 「人口의 經濟學」, p. 63.

이와같은 事實에 입각해서 Keynes 는 第2表에서 英國에서의 1860年과 1913年(第1次世界大戰 勃發前年)을 比較하는 數字를 例示하였다. 그것에 의하면 第1次大戰 以前の 50年間은 技術進歩가 多少間은 이루어졌어도 資本需要를 크게 增大시키지는 못하였으므로, 資本係數는 불과 10%의 伸張率에 그쳤다. 그러나 이 期間에 英國의 人口는 50%의 增加를, 生活水準은 60%의 向上을 表示하고 있다. 그러므로 資本需要(實物資本)가 2.7倍로 增加한 것은 주로 人口增加와 生活水準의 向上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다.

이리하여 Keynes 는 人口減退가 經濟發展(完全雇用の 維持)의 抑制的 要因이라 보고, 마침내 Malthus 에 대한 關心의 焦點을 그의 『人口論』에서부터 「有效需要의 原理」에로 轉換하고, 過剩人口思想으로부터 過少人口思想에로 轉向하여, 人口의 經濟發展 要因으로서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Keynes 는 第1次大戰 直後 그가 發表한 『平和의 經濟的 歸結』(1919年)에서는 人口過剩을 主張하였지만, 1930年代의 不況에 直面해서 그가 發刊한 『一般理論』(1936年) 및 그의 講演 「人口減退의 若干의 經濟的 歸結」(1937年)에서는 오히려 人口過少를 力說하여 對照를 이루고 있다.<sup>㉔</sup>

註 ㉔ Keynes 는 人口增加는 生活水準의 向上을 妨害한다는 Malthus 의 主張을 引用하여, 停滯人口는 生活水準의 向上을 容易하게 하지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前提條件을 必要로 한다고 한다. 즉 그것은 人口의 停滯에 의하여 잃어버린 有效需要의 損失分이 그것과 一致할 만한 富 또는 消費의 增加에 의하여 커버(cover)된다는 條件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적어도 Malthus 의 惡魔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무서운 惡魔 즉 有效需要의 崩壞를 통해서 脫出되는 失業의 惡魔가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惡魔도 또한 Malthus 의 惡魔라 불려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惡魔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먼 처음으로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Malthus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J.M. Keynes, *Ibid.*, p.196.

Keynes 에 의하여 主張된 長期停滯要因으로서의 人口減退의 意義는, 뒤이어 美國의 Hansen 에 의하여 계승되게 되었다. Hansen 은 먼저, 「現代의 問題는 무엇보다도 民間投資機會의 不足에 있다」<sup>26</sup>라고 主張한다. 그리고 民間投資機會를 減少시키는 長期的 要因으로서 그는 다음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 1) 人口增加率의 遞減
- 2) 新領土 新資源發見의 可能性의 消滅 즉 邊境(frontier)의 枯竭
- 3) 資本使用的인 發明으로부터 資本節約的인 發明에로의 轉換<sup>27</sup>

그런데 이들 세가지 要因은 過去에는 각각 獨立해서 또는 두개以上 結合해서 投資의 길을 열어주고, 資本形成의 급속한 成長을 가져왔다. 이렇게 본 그는, 그러나 新領土의 開發이 더 이상 期待할 수 없게 되고, 더욱이 人口增加가 減退한 오늘날에 와서는, 經濟의 「外延的 擴張」(extensive expansion)에는 이미 期待할 수 없고, 다만 技術進步에 의한 新産業의 發達이라는 「內充的 擴張」(intensive expansion)에만 期待를 걸게 된다고 한다. 만약에 이것이 實現되지 못할 때에는 經濟는 長期停滯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 하였다.<sup>28</sup>

다음에 그는 資本形成은 「資本의 擴充」(capital deepening) 또는 「資本의 擴張」(capital widening)의 形態를 취하면서 행해진다고 한다. 여기에서 「資本의 擴充은 生産量 1單位當 보다 많은 資本이 使用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資本의 擴張은 資本形成이 完成財(final product)의 生産增加와 발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sup>29</sup> 敷衍하면, 資本의 擴充은 오늘날의 말을 빌리면 資本係數의 增大에 의한 資本增加를 의미하고, 資本의 擴張은 資本係數가 一定하다 前提하고, 生産增加에 의하여 야기되는 資本形成의 增大를 의미한다. 지금 生産量을  $O$ 로 하여 定式化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K=O \cdot \frac{K}{O} \dots\dots\dots (4)$$

(4)式에서 生産量  $O$ 의 增大에 의한 資本量  $K$ 의 增加가 資本의 擴張이고, 資本係數  $\frac{K}{O}$ 의 增大에 의한 資本량의 增加가 資本의 擴充이다. 그리고 資本의 擴張過程은 다음과 같이 定式化된다.

$$K=P \cdot \frac{O}{P} \cdot \frac{K}{O} \dots\dots\dots (5)$$

즉 이 式은, 資本係數  $\frac{K}{O}$ 는 一定하다 前提할 때에는, 資本의 擴張은 人口  $P$ 의 增加와 그리고 1人當 生産性  $\frac{O}{P}$ 의 增大의 두가지 要因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註 <sup>26</sup> A.H. Hansen, "Economic Progress and Declining Population Growth", in *Readings in Business Cycle Theory*, 1944, p.379.

<sup>27</sup> A.H. Hansen, *Fiscal Policy and Business Cycles*, 1941, p.352. 都留重人譯 『財政政策と景氣循環』 p.388.

<sup>28</sup> *Ibid.*, 前掲書 p.402.

<sup>29</sup> *Ibid.*, 前掲書 p.391.

Hansen 의 이 (5)式은 앞서의 Keynes 의 (1)式  $K=P \cdot \frac{Y}{P} \cdot \frac{K}{Y}$  와 恰似한 것으로, 經濟가 停滯로부터 脫皮하는 長期的 要因으로서 人口增加의 重要性을 잘 표시하고 있다. Hansen 은 後에 이르러 「資本의 擴充과 擴張」의 概念을 多少 改正하였다. 「資本의 擴充」은 맨 처음에는 資本係數  $\frac{K}{O}$  의 增大를 의미하였기 때문에 資本係數의 分母는 生産量으로 充當되었지만, 그 는 그것을 勞働者數로 變更하여  $\frac{K}{L}$  (L은 勞働者數)로 表示하였다. 따라서 「資本의 擴充」은 이번에는 勞働者에 裝備된 資本量의 比率 즉 「資本裝備率」을 의미하게 되었다. 또 「資本의 擴張」이라 말 할 때에도 「資本裝備率」이 不變이라 前提하고 勞働者의 追加에 對應하는 資本 需要를 의미한다. 이와같은 새로운 意味의 「資本의 擴充」은, 技術進步에 의하여 自發的 投資 (autonomous investment)가 일어나고 勞働者數가 一定한 狀態下에서 資本裝備率을 높이는 것 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資本의 擴張」은 自發的 投資에 誘發된 投資 (induced investment)가 行해짐으로써 新規의 勞働者나 失業者를 吸收하는 資本增加를 의미한다. ㉞

Hansen 의 이와같은 見解에 대하여 우리들은 잠시동안 이를 吟味해 보기로 하자. 먼저, 人口增加率의 遞減에 關係서 高찰하면, 이 要因이 投資活動에 주는 影響에는 두가지 經路가 있다. 첫째는 人口增加率의 上昇이 有效需要의 增大를 招來하고 나아가서 그것이 投資機會에 影響을 준다는 經路이다. 둘째는 人口의 增加는 勞動力의 增大를 가져오고, 그 結果 勞働者 間의 競爭이 激化하여 賃金水準에 壓力을 주고, 利潤率을 높이고, 資本蓄積을 促進하고 그 리고 投資機會를 擴大한다는 經路이다. 먼저 첫번째의 經路부터 檢討해 보기로 하자. 人口의 增加는 물론 欲望의 增大를 의미할지 모른다. 그러나 「欲望과 有效需要는 同一한 것이 아니 다. 만약 同一한 것이라면 가장 貧困한 國民이야말로 가장 活潑한 需要를 나타내는 國民이 될 것이다.」㉞ 「重要한 것은 人口의 增加가 아니라 購買力의 增加이다. 貧困한 사람의 數가 增加 하여도 市場은 擴大되지 않는다.」㉞ 따라서 人口의 增加는 직접 有效需要의 增加로 되지는 않 는다.

다음에 둘째번의 經路를 檢討해 보기로 하자. 그것은 人口의 變化가 勞働供給量의 變化를 招來하고, 賃金水準과 利潤率에 影響을 주어 投資活動을 變動시킨다는 見解인데, 우선 問題가 되는 것은, 人口總數의 變化가 그대로 勞働市場에 流入하여 勞働人口의 變化를 가져오는 가의 與否이다. 人口增加와 더불어 經濟의 非資本主義的 部門(예컨대 零細農業, 中小企業 등) 으로부터의 勞動力移動의 Tempo(tempo), 그리고 海外로부터의 移民의 狀態 등도 勞働人口의 變化에 큰 影響을 부여하고 있는 點을 고려하면, 이와같은 人口總數와 勞働人口와의 사이의 單純한 直接的 關係를 過大視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나아가서 勞働供給量의 增加가 賃金

註 ㉞ A.H. Hansen, *Business Cycles and National Income*, 1951, p.190.

㉞ J.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 1950, p.114.

㉞ M. Kalecki, *Theory of Economic Dynamics*, 1954, p.161.

率을 低下시키고, 利潤率을 引上하여 投資를 刺戟한다는 論理도 事實과는 距離가 먼 것 같다. Keynes의 「有效需要의 原理」에 의하면 勞働者間的 求職競爭의 激化로 因한 賃金의 下落은 賃金取得者의 所得을 減少시키게 되므로, 만약에 거기에 對應하는 投資의 增大가 이루어지지 않는 限 반드시 總有效需要의 低下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사실 消費者의 購買力의 減退는 投資의 增大를 實現하지는 못할 것이고, 더욱이 값싼 勞動力의 使用은 勞動節約의인 값 비싼 機械設備의 導入을 抑制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Baran은 論하기를 「勞働供給量의 增大와 勞賃의 低廉化는 投資와 產出量의 增大를 가져오기는 커녕, 오히려 表面에 露出된 失業 또는 偽裝된 失業의 增大를 가져올지 모른다」<sup>㉔</sup>고 한다. 要컨대, 人口의 變化 그 自體가 投資量에 重大한 影響을 미친다고 생각할 根據는 稀薄하다.

이미 論한바와 같이 Keynes는 1930年代의 長期停滯要因으로서 人口의 減少를 強調하였다. 失業의 問題에 直面해서, 人口를 與件으로 한 短期的 分析에서는, 完全雇用의 實現과 그 維持에 必要한 貯蓄 및 이에 符合하는 投資가 要求되었다. 不況의 原因을 投資不足이라 判斷한 Keynes는, 한 걸음 나아가서 長期的 要因에도 着眼하여, 投資不足의 原因으로서 人口의 減少를 主張하고, 따라서 投資誘引要因으로서의 人口增加를 力說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思考는 Hansen에 계승되어 그의 이른바 長期停滯論을 展開하였다 함은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다. 다만 「人口增加」의 意味에 있어서는 兩者間에 本質的으로 相異한 點이 있었다. 즉 Keynes의 「人口」는 消費者의 數를 의미하였지만, Hansen의 그것은 勞働者의 數를 의미하였고, 그리고 이 勞働人口의 增加가 投資를 誘發하고, 그 結果 長期停滯로부터의 脫皮를 可能케 하는 것이라 하였다.

여하튼간에 이 長期停滯論은 不況의 1930年代부터 第2次大戰前까지의 歐美先進工業國家에서 支配의 思想이었다. 第2次大戰終熄을 前後해서부터, 政策樹立者들의 머리속에는 항상 「平和의 經濟的 歸結」로서의 저 목소리 치는 1930年代初의 不況과 失業이 回想되어, 戰後의 平和經濟를 掩襲할지도 모를 失業을 未然에 防止하고, 完全雇用을 實現하기 위한 積極的인 政策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戰後에는 새로이 完全雇用을 계속 維持하기 위한 「經濟成長論」이 가장 重要한 實踐的 課題로 採擇되게 되었고, 한 걸음 나아가서 그것을 成就시키기 위한 補完策으로서 低開發國經濟의 開發問題에까지 研究의 進展을 보게 되었다. 우선 經濟成長論부터 고찰키로 하자.

經濟成長論은 맨처음 저 有名한 Harrod의 『動態經濟學序說』<sup>㉕</sup>에서 展開되었다. Harrod의 새로운 理論(動學理論)의 核心은 다음의 세가지 命題, 즉 (1) 社會의 貯蓄供給의 가장 重要한 決定要因은 社會의 所得水準이다. (2) 社會의 貯蓄需要의 가장 重要한 決定要因은 社會

註 ㉔ P.A. Baran,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1957, p.67.

㉕ R.F. Harrod, *Towards a Dynamic Economics*, 1948.

의 所得增加率이다. 그리고 (3) 貯蓄에 대한 需要와 供給은 同一하다는 세가지 命題로 구성 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서 (1)의 命題는 乘數理論(the theory of multiplier)을, (2)의 命題는 加速度原理(acceleration principle)를 의미하고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Harrod 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成長率概念을 規定하고 있다. (1) 現實의 成長率  $G$  (actual rate of growth), (2) 適正成長率  $Gw$  (warranted rate of growth), (3) 自然成長率  $Gn$  (natural rate of growth). (1)의 現實의 經濟成長率  $G$  는 現實의 있는 그대로의 國民所得 成長率을 의미하고, (2)의 適正成長率  $Gw$  는 資本 스톡을 完全히 利用하여 生産되는 國民生産物(즉 國民所得)의 成長率을 의미하는 것으로, 貯蓄率  $s$ 와 資本을 完全히 利用하는 경우의 必要資本係數  $Cr$  (required capital coefficient)와의 比率에 의하여 算出된다. (즉  $Gw = \frac{s}{Cr}$ ) 따라서 이와같은 狀態는 生産者가 滿足하는 成長率로서, 資本의 完全利用成長率이라 볼 수 있다. (3)의 自然成長率  $Gn$  은 技術進歩와 人口增加에 의하여 規定되는 成長率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人口의 一定比率을 勞動人口라 하면, 自然成長率은 同時에 完全雇用을 維持하는 成長率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成長率은, 技術進歩下에서 勞動人口의 增加를 完全利用함으로써 可能하게 되는 國民所得의 成長率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勞動의 完全雇用成長率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 技術進歩는 勞動生産性에 具現되기 때문에, 技術進歩率  $t$ 를 勞動生産性의 成長率로 代置하고, 同時에 勞動人口의 成長率을  $l$ 로 표시하면, 自然成長率  $Gn$ 은 다음과 같이 表示할 수 있다.

$$Gn = l + t$$

먼저, 現實의 成長率  $G$  는 資源과 勞動의 生産力의 制約으로 因하여, 長期的 觀點에서 볼 때 完全雇用成長率  $Gn$ 을 上廻하는 경우는 없다. 다음에 資本의 完全利用成長率  $Gw$ 와 勞動의 完全雇用成長率  $Gn$ 을 比較해 보면, 우선 勞動人口는 人口의 一定比率이라 假定할 수 있으므로 勞動人口의 成長率  $l$ 과 人口의 成長率  $p$ 는 同一하다. (즉  $l = p$ ). 다음에 貯蓄率  $s$ 는 實證分析에 의하여 長期에 걸쳐서는 安定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技術進歩에 甚한 變動이 없다고 假定하면, 技術進歩率  $t$ 와 必要資本係數  $Cr$ 는 모두 不變이라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經濟의 長期的 動向을 決定하는 要因은 人口의 變動率  $l$ 에 歸着된다.

만약  $Gn > Gw$ 이라 하면  $l + t > \frac{s}{Cr}$ 가 되므로, 人口의 增加는 消費를 增加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雇用量을 擴大시켜 많은 投資를 必要로 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現實의 成長率  $G$  는 適正成長率  $Gw$ 를 上廻하기 때문에 好景氣가 계속되고, 同時에 인플레이션의 傾向을 수반하게 된다. 즉 投資需要가 貯蓄을 上廻하게 된다. 한편,  $Gn < Gw$ 인 경우에는,  $l + t < \frac{s}{Cr}$ 이므로, 人口增加가 減退하고, 投資需要의 刺戟을 弱화시킨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現實의 成長率  $G$  는 適正成長率  $Gw$ 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有效需要가 減退하고 長期停滯의 傾向을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Gn = Gw$  일 때에는  $l + t = \frac{s}{Cr}$ 이므로, 人口增加에 의한 投

資需要가 正確하게 完全雇用貯蓄에 一致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現實의 成長率  $G$ 도 이 等式에 參加하는 셈이기 때문에 完全雇용을 實現하고, 그것을 持續하면서 經濟가 着實하게 成長을 하게 된다. 이 경우의 人口를 「適正成長率의 人口」 즉 「適度人口」라 부를 수 있다.<sup>㉔</sup>

위에서 고찰한  $G_n$ 과  $G_w$ 와의 關係는 물론 經濟의 長期的 狀況을 說明한다. 人口成長이 급속한 時代(예컨대 19世紀)에는 一般의으로  $G_n > G_w$  이므로  $G > G_w$ 의 期間이 길고 따라서 好況이 계속되지만, 反對로 人口成長率이 완만한 時代(예컨대 20世紀)에는  $G_n < G_w$ 가 通常 狀態이므로  $G < G_w$ 의 期間이 길고 따라서 慢性的 不況이 一般化하게 된다.

以上이 Harrod의 成長率理論의 要約이다. 一般의으로 低開發國의 經濟開發을 論議함에 있어서, Harrod 등에 의하여 展開된 經濟成長의 모델이 使用되어 왔다. 그러나 이 모델은 어디까지나 完全雇용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經濟成長率의 問題를 取扱하고 있다. 즉 이 條件이 充足될 때의 所得·貯蓄·投資의 諸關係를 分析하고 있다. 물론 先進諸國에 있어서는 有効需要의 不足으로 인한 失業에 매우 敏感한 것으로, 그와같은 곳에서는 人口增加는 投資와 貯蓄을 刺戟하여 資本形成을 促進하거나, 또는 勞動力供給의 增加를 통해서 社會的 生産物의 增大에 이바지한다. 1920年代의 人口增加率의 減退가 1930年代의 不況에 拍車를 加하였던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低開發地域에 있어서는 投資가 貯蓄을 刺戟하는 힘은 弱하고 특히 有効需要의 不足으로 인한 失業의 重要性은 先進國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적다. 低開發地域에서는 「勞動의 完全利用」의 問題에 關한 限, 有効需要의 增加보다는 오히려 潛在失業(즉 過剩人口)의 除去에 더 關心을 갖고 있다. 따라서 每年 增加하는 生産能力은 年年 增加하는 人口를 지탱하는데 吸收되어, 人口增加는 投資를 刺戟하기 보다는 오히려 生活水準(1人當 所得)의 向上을 阻害하는 要因으로 된다. 그리고 乘數 및 加速度의 原理도 先進諸國에는 適用될 수 있어도 그 것이 그대로 低開發地域에 適用될 수는 없다. 이리하여 第2次大戰後, 低開發地域에 있어서는 先進諸國에서 展開된 成長모델과는 相異한 아프로치(approach)가 必要하다는 主張이 擡頭하게 되었다.<sup>㉕</sup>

要約컨대 Malthus나 J.S. Mill과 같은 古典學派의 經濟學者들에 대하여는 人口問題는 經濟學에 있어서 缺如될 수 없는 중요한 部分이었다. 이에 대하여 Ricardo나 그 以後의 Warlas 및 Pareto 등의 精巧를 極한 經濟理論에 있어서는 主로 短期의 諸問題에 關心이 集中되어, 人口問題는 經濟理論의 對象밖으로 追放되었었다. 經濟學의 主要課題가 失業의 問題였었던 1930年代에 있어서는, 人口增加가 有効需要를 增加시킨다는 見地에서 獨立變數(independent variable)로 取扱되긴 하였으나(즉 從屬變數 dependent variable로 取扱되지는 못하였다는 뜻임) 經濟

註 ㉔ 中山伊知郎·南亮進『適度人口』pp.159~160.

㉕ H. Belshaw, *Population Growth and Levels of Consump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Countries in Asia*, 1956, pp.58~59.

學의 主要部分으로는 되지 못하였다. 이와같은 事實로 因하여 人口問題는 經濟學의 研究分野에서 除外되고, 다만 人口增加는 結婚이라든가 家族狀態에 關係된다는 理由 밑에 社會學의 領域에 歸屬시키게 되었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人口問題는 主로 社會學者의 研究對象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들이 經濟學徒로서 經濟開發과 같은 長期的·構造的 問題에 關心을 가질 때에는 우리들은 새삼스럽게 人口問題를 經濟學의 體系 속에 포함시켜야만 된다는 것을 切感하지 않을 수 없다.

### III. 低開發國에 있어서의 人口問題와 그 對策에 관한 諸見解

經濟開發을 企圖하는 低開發國 앞에는 여러가지 障害가 놓여 있다. 그 중에서 主要한 것들을 指摘하면 다음과 같다. (1) 農業發展의 不振, (2) 經濟構造의 不備와 生産의 基本的 要素의 缺如, (3) 行政機能의 脆弱性, (4) 低開發國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國際的 地位의 制約性, (5) 人口問題의 重壓.<sup>⑥</sup> 특히 大部分의 開發論者들은 低開發諸國의 高出生·低死亡率에 입각한 이른바 아시아의인 급격한 人口成長이 다른 어느 障害보다도 國民所得에 대한, 따라서 經濟開發에 대한 阻止의 役割을 수행한다고 한다. Myrdal은 論하기를 「第2次大戰 以後, Malthus의 人口理論이 다시 중요한 意義를 갖게 되었다. 分明히 低開發國 住民의 大部分은 말사스의 生存水準에서 生活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所得水準을 向上시킬 可能性을 갖는 如何한 試圖도 모두 人口增加에 의하여 吸收될 念慮가 있다」<sup>⑦</sup>라고 하였다. 한편 아시아諸國의 開發方式를 모색한 Dobb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 鐵道 또는 一聯의 發電所의 建設計劃이 着手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農業이 生産活動의 唯一한 形態였다고 假定하자. 그와 같은 경우에 만약 그 社會의 一切의 活動의인 勞動力이 지금까지 農業에만 生産의으로 使用되고 있었다고 하면 勞動力은 農業生産高의 低下와 거기에 따르는 1人當 消費의 低下라는 犧牲에 의해서만 鐵道나 發電所의 建設에 移轉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農業에 使用되지 않는(또는 적어도 극히 非生産的으로 밖에 使用되지 않는) 勞動力의 過剩이 從來부터 있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鐵道나 發電所의 建設에로의 勞動力의 移轉은 農業生産高의 減少를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비록 있었다 할지라도 거의 無視할 程度의 減少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資本建設은 1人當 消費의 減少의 必要없이 시작될 것이다. 『일하는 손』은 農村으로부터 새로운 建設地에로 移動할 것이다. 일하는 손과 더불어 먹을 입(口)도 또한 移動할 것이다. 農村에서 扶養될 人口가 減少하면 農村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消費量을 조금도 減少시키지 않고, 建設에 從事하는 膨脹된 勞働者群의 要求를 充足시키기 위한 食糧이 農村

註 ⑥ 『國際經濟旬報』(日本) No. 48, 1959.

⑦ G. Myrdal,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 1957, p.118.

으로부터 搬出될 可能性이 創出될 수 있을 것이다.]<sup>39</sup> 이와같은 Myrdal 이나 Dobb 의 見解는 要컨대 農村에 密集되어 있는 過剩人口가 아시아의 低開發諸國의 經濟開發에 阻止的 役割을 하고 있음을 是認한 論議라 볼 수 있다.

以上과 같이 低開發國의 經濟開發에 阻止的 役割을 행하고 있는 人口過剩 또는 人口壓力의 問題를 開發論者들은 두가지 側面 즉 「潛在失業」의 側面과 「人口增加率」의 側面으로 區分해서 高찰하고 있다. 예컨대, Nurkse 는 人口問題를 靜態의 人口問題와 動態的 人口問題로 區分하여 前者를 失業의 問題로, 後者를 人口增加率의 問題로 取扱하고 있다.<sup>40</sup> 먼저 潛在失業 즉 低雇用 (under-employment) 의 概念에 關하여는, 위의 Dobb 의 引用文에서도 示唆되는 바와 같이, 農村의 剩餘勞動力이라 定義되어질 수 있다. 人口가 農村에 極심하게 集中하고 있는 人口過剩國에서는 勞動의 限界生産物은 제로(零)이다. 그러므로 總農業生産高를 減少시킴이 없이 相當量의 農村의 剩餘勞動力을 轉出시켜 道路나 灌溉工事 등 生産資本財의 建設에 就役시킬 수 있다. UN 報告書에 의하면 農業產出高를 減少시킴이 없이 農村으로부터 引出할 수 있는 農業人口 즉 剩餘勞動力은 戰前의 東歐에서는 20~25%, 이집트의 50%, 이태리의 25%, 東南亞 諸地域에서는 25%로 推算하고 있다.<sup>41</sup>

우리나라 全體의 過剩人口現象을 보진대, 第3表에 의하면 完全失業者數는 1965년에는 677千人, 1966년에는 666千人, 1967년에는 590千人으로 나타나 있다. 사실 이 數字는 先進國과 比較해 볼 때,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第3表 Persons Unemployed and Employed under 18 Hours per Week by Year

(in 1000)

Year	No. of persons unemployed	Unemployed rate	No. of persons employed under 18hr.	Rate of persons employed under 18hr
1 9 6 3	705	8.1	693	8.0
1 9 6 4	683	7.7	763	8.6
1 9 6 5	677	7.4	674	7.3
1 9 6 6	666	7.1	760	8.1
1 9 6 7	590	6.2	632	7.1

Source: Economic Planning Board, Annual Report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1967)

註 <sup>39</sup> M. Dobb, *Some Aspects of Economic Development*; Three Lectures, 1951, pp.40~41.

<sup>40</sup> Nurkse 는 人口資源에 關한 靜態의 見解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나는 人口중의 一定比率은 農業에는 必要치 않고, 더욱이 食糧產出高를 하등 減少시키지 않고도 다른 活動分野에 移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人口成長을 問題로 삼는 動態的 見解와 對照시켜, 靜態的 見解라 부른다.」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1953, p.32.

朴東燮譯, 『後進國의 資本形成論』, p.56.

<sup>41</sup> U.N., *Measure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Countries* pp.8~9.



이와같은 낮은 失業率의 表示는 經濟活動人口중 週當 단지 1時間이라도 일에 從事하고 있는 者는 모두 就業者로 간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週當 18時間以下の 短期就業者가 1965년에는 674千人, 1966년에는 760千人, 1967년에는 632千人이나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더욱 重要한 것은 第4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1963年에서 1967년까지의 5年間을 平均해서 볼 때, 6月과 12月사이에 就業者數에 있어서 3,466千人이나 差가 생기고 있다는 點이다. 이 差의 發生은 主로 家族從事者, 女子就業者 등 不完全就業者(潛在失業者)에 起因한다. 이와같은 龐大한 不完全就業者의 存在는 結局 過剩人口의 壓力 때문에 發生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④

第4表 Persons Employed by Class of Workers

Year	Total			Self-employed			Family workers			Regularly employed			Temporary employed			Daily workers		
	Both sex	Male	Female	B.S.	M.	F.	B.S.	M.	F.	B.S.	M.	F.	B.S.	M.	F.	B.S.	M.	F.
June 1963- June 1967 (A)	—	—	—	3,322	2,682	640	3,698	1,170	2,528	1,162	945	217	612	443	169	1,218	792	426
Dec. 1963- Dec. 1967 (B)	—	—	—	2,565	2,052	513	1,443	590	853	1,218	998	220	653	459	194	881	690	191
(A)-(B)	3,446	1,381	2,065	757	630	127	2,555	580	1,675	△56	△53	△3	△41	△16	△25	337	102	235

Source: EPB, Annual Report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1967)

이와같은 人口過剩에 대한 方策은 무엇보다도 급속한 經濟開發에 의한 雇用機會의 創出이라 할 수 있는데, 土地가 거의 最大限으로 利用되어 있는 低開發國에서는 工業化가 當面의 緊急課題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工業化를 위한 資本形成의 一環으로 過剩人口의 活用이 重要視되게 되었다. 이와같은 過剩人口를 資本形成의 源泉으로 活用하고자 하는 主張은 Nurkse와 Staley에 의하여 具體적으로 展開되었다. 특히 Nurkse의 「僞裝失業」의 概念에 입각한 「潛在的 貯蓄力」(concealed saving)의 利用은 너무나 有名한 이야기다. ④ 그는 僞裝失業을 아무 費用없이(costless) 資本形成에 利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經濟發展에 プラス的 效果를 가져다 준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Nurkse의 見解는 과연 過剩人口狀態下에 있는 低開發國에 대하여 妥當性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 Ashish Boes는 그 것을 正面으로 否定하고 있다. 그는 印度의 實例를 들어 失業(低雇用을 포함하여)을 解決하고자 하는 工業化計劃조차 失業者를 就業시킬 수 없다고 한다. 즉 工業化計劃은 新規 勞動者만을 就業시킬 따름이고, 工業化에 着手하기 이

註 ④ 『人口問題論集』, 第6號, 1968, pp.112~113.

④ R. Nurkse, *op. cit.*, pp.37~38, 前掲書 p.58.

前的 失業者는 그대로 放置되지 않을 수 없다 한다. Boes 는 印度計劃委員會의 勞動雇用擔當長官인 B.N. Data 가 發表한 數字<sup>44</sup>에 입각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年間의 失業者數를 吸收하고자 하면, 約 2,400萬名의 雇을 增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위에 1951~56年의 5年 동안에 勞動力의 純增加는 900萬名에 達할 것이라 推算하였으므로 失業者를 完全히 吸收하고자 하면 5年間に 約 3,300萬名의 雇을 創出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第1次 5個年計劃이 達成한 雇의 增加는 단지 600~700萬名에 不過하였다. 따라서 5個年間に 걸친 工業化計劃은 겨우 新規 勞動力을 吸收하였음에 不過하고, 從來의 失業者는 吸收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第2次 5個年計劃의 雇增大에 관해서도 言及하고, 그 計劃조차 단지 新規勞動力만을 吸收하는데 그칠 것이라 보고 있다. 結論적으로 印度의 失業者 및 低雇의 解決은 大端히 困難하다 보고 있다.<sup>45</sup> 여하튼간에 위의 Boes 의 見解는 低開發國에 있어서 低雇(不完全雇) 즉 過剩人口를 資本形成의 一環으로 活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以上에서 低開發國에 있어서의 潛在失業者의 經濟發展에 대한 役割에 관하여 두가지 相反된 見解를 紹介하였다. 즉 Nurkse 와 Dobb 은 農村에 있어서의 潛在失業者를 農村으로부터 工場으로 移動시킴으로써 人口過剩의 問題를 低開發國의 工業化의 經濟的 基礎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데 反하여 Boes 는 그것이 극히 困難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다음에 低開發國의 人口成長率의 問題를 고찰키로 하자. 오늘날 大部分의 아시아低開發國에 있어서의 人口壓力은 1人當 所得과 消費를 높이는데 마이너스의 經濟的 作用을 하고 있음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특히 低開發國에서는 完全失業者以外에 龍대한 不完全就業者(低雇)의 存在가 또한 큰 問題로 되어있다 함은 앞서 言及한 바와 같다. 이에 관하여 Sadie 는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農業國家에서는 不完全雇이 充滿하고 있다. 調査마다 使用된 定義와 基準이 다르기 때문에 相互 比較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지만, 不完全雇率은 대체로 比律賓의 12.5%로부터 파키스탄의 22%에 이르는 範圍로 散在하고 있는데, 나타나고 있지 않는 不完全雇까지 포함시킨다면 比律賓의 경우도 21.5%까지 上昇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印度의 경우에 있어서는 1,500萬 내지 1,800萬의 不完全雇이 있는 것으로 推算되고 있으나, 農業에 從事하는 勞動人口의 比率이 1961年度의 70%로부터 1976年의 60%로 줄어들 것

註 44) B.N. Data 에 의하여 推定된 1951年의 失業者와 低雇의 狀態는 다음과 같다.

1) absolute unemployment (largely urban): 3 million for 12 months.

2) under-employment:

(ㄱ) rural agricultural 30.3 million for 7 monthus.

(ㄴ) rural non-agricultural 4.8 million for 6 months.

(ㄷ) urban agricultural 0.8 million for 7 months.

(ㄹ) urban non-agricultural 2.1 million for 6 months.

3) total: 24, 41 million for 12 months.

以上の 數字는 2,441萬名의 年間雇使用者가 經濟의 好調를 持續시키기 위하여 必要하다는 것을 表示하고 있다.

45) Ashish Boes,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in India" (日本, 『農業總合研究』 第11卷 第1號 1957, p.262)

이 豫期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 農業部門은 同 15年間に 2,300萬의 새로운 일꾼을 더 收容치 않으면 안 될것 같다. 이 問題의 重要性은 1951년부터 1961년까지의 10年間に 不過 男性人口의 2%만이 移出되어 이 部門을 떠났다는 事實로도 測定될 수 있다. 農業 또는 農村地域의 다른 곳에서 雇用の 機會를 찾을 수 없거나, 더 좋은 雇用の 機會를 찾아 보려고 피하는 사람들이 都市에 모여들고 있으나, 都市의 工業發展이 缺如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이 찾고 있는 職場이 지극히 稀少함을 發見할 따름이다. 이렇게 되어 不完全雇用은 失業으로 轉化되고, 幻滅을 느낀 失意에 젖은 犧牲者들은 손쉽게 惡質의인 煽動家들의 誘惑對象이 되고 만다.]<sup>46</sup>

더욱이 「資本」의 立場에서 論議를 展開하는 後進國 開發論者들은 거의 모두 급속한 人口成長은 低開發國의 經濟發展에 대하여 큰 障害가 되고 있다고 한다. 즉 人口의 급속한 增加는 低所得→低貯蓄→低投資를 야기시켜 工業化의 可能性——그 可能性은 人口增加를 上廻하는 生産增加에 의하여 비로소 期待될 수 있는 것이지만——을 희박하게 만든다는 생각밑에 人口의 급속한 成長率을 經濟發展의 障害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開發論者들 間에도 本質的인 差異는 아니라 할지언정 多少의 見解差異를 볼 수 있다. 그것을 大別하면 低開發國의 經濟發展에 대하여 人口의 급속한 增加는 決定的인 障害라 보는 見解와, 반드시 決定的인 障害라고는 볼 수 없다는 見解로 分類될 수 있다. 前者의 見解를 代表하는 者는 오늘의 後進國 開發論의 主流라 간주되고 있는 Staley 이고, 後者의 見解를 代表하는 者는 低開發國의 立場에 同情的인면서 同時에 從來의 先進國 대 後進國의 關係에 批判的인 見解를 갖고 있는 Singer 이다. 우리들은 먼저 Staley 와 Singer 를 中心으로 하여 開發論者들의 見解를 살펴보기로 하자.

Staley 는 말하기를 이미 稠密한 人口數를 가진 나라에 있어서 近代의 死亡率(즉 低死亡率)과 前近代의 出生率(즉 高出生率)과의 結合에 의한 급속한 人口增加가 長期的으로 계속되면 그 結果는 破局的인 것이 될 것이라 한다. 즉 급속한 人口增加는 單位面積當의 耕作地에서 扶養되는 人間의 數를 增加시키고, 그리고 힘껏 努力해서 蓄積한 資本을 教育이나 保健과 같은 社會的인 서비스分野에 使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편 土地나 産業資本이 貧弱한 나라에 있어서는 過剩人口의 壓力에 의하여 勞賃을 낮은 水準으로 抑壓하게 된다. 이와 같은 事態는 一國의 生産性을 向上시키는데 必要한 機械化(mechanization)를 妨害하는 結果로 된다. 또 出生率이 높은 나라에서는 出生率이 낮은 나라에 比하여 그 人口의 年齡構造로 보아 당연히 少數의 生産的인 勞動者가 보다 많은 非生産的인 人口를 扶養하지 않으면 안된다.<sup>47</sup>

여기에서 우리들은 世界 各地域의 出生率과 그리고 各國 人口의 年齡構造를 간단히 살펴보기

註 46 Jan L. Sadie, *Labor Supply and 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人口問題研究所譯『低開發國의 勞動供給과 雇用』(『後進國의 人口問題』, 1967, p.75)

47 E. Staley, *Future of Underdeveloped Countries*, 1954, pp.279~280.

第 5 表 1956~60年 世界地域別 出生率 및 死亡率

地 域	出 生 率	死 亡 率	自 然 增 加 率
世 界	36%	18%	18%
아 시 아 (소련除外)	41	22	19
西 南 亞	48	22	26
南 中 部 아 시 아	41	24	17
東 南 亞	41	21	20
極 東	40	20	20
(日 本)	18	8	10
아 프 리 카	47	25	22
北 아 프 리 카	45	23	22
熱 帶 및 南 阿	48	27	21
유 럽 (소련除外)	19	11	8
西 北 유 럽	18	11	7
中 央 유 럽	19	11	8
아 메 리 카	34	13	21
北 美	25	9	16
中 美	42	15	27
南 美	42	19	23
오 세 아 니 아	24	9	15
소 련	25	8	17

Source: 南亮三郎・館稔編『世界の人口問題』1963, p.46.

로 하자. 第5表에 의거하여 1956~60년의 出生率을 世界 各地別로 보건대 유럽・北美・오세아니아에서는 대체로 人口 1,000名에 대하여 20名 前後인데 比하여 中美・南美・아시아(日本을 除外하고)에서는 40名以上이다. 따라서 出生率에 관해서는 世界는 크게 두 地域으로 區分되어질 수 있는데, 그 差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出生率이 낮은 地域은 近代化・工業化가 이루어진 地域이고, 出生率이 높은 地域은 이것이 뒤떨어진 이른바 低開發地域이다. 우리나라 出生率의 趨勢는, 1966年の 센서스의 推定値에 의하면 1958년에 約 44%로 最高에 達하였으며, 그 後 점차적으로, 그리고 1962年以後는 급격히 低下하기 시작하였다. 즉 1962年の 出生率은 38.8%, 63年은 37.8%, 64年은 34.0%, 65年은 31.3%로, 그리고 66년에는 29.6%로 低下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이 數値는 센서스調査에서 0歲의 漏落이 없다고 假定했을 때의 出生率이다. 만약 0歲에 10%의 漏落이 있었다고 假定하면, 1960年の 出生率은 32.5%가 된다. ④

다음에 年齡構造는 보통 三段階로 區分되는데, 具體的으로는 第1段階의 幼年期人口(少年人口) 0—14歲, 第2段階의 靑壯年期人口(生産年齡人口) 15—64歲, 第3段階의 高年齡期人口(老年

註 ④ 李柄武外 2人, 「人口成長이 經濟計劃에 미치는 影響」(人口問題論集, 第10號 1970, p.66)

人口) 65歲以上으로 區分된다. 第1段階의 少年人口와 第3段階의 老年人口와의 合計의 第2段階의 生産年齡人口에 대한 比率을 從屬人口指數(ratio of dependent population)라 부른다. 즉

$$\text{從屬人口指數} = \frac{\text{少年人口} + \text{老年人口}}{\text{生産年齡人口}}$$

第6表는 各國의 年齡別 人口構造를 表示하고 있는데, 少年人口를 보면 西獨 22.4%, 英國 22.6%, 이탈리아 24.5%, 日本 25.6%, 프랑스 26.2%, 美國 30.9%임에 대하여, 印度 41%, 인도네시아 42.1%, 中國(臺灣) 45.9%를 표시하고 있다. 다음에 生産年齡人口의 比率은 日本이 68.1%를 표시하여 西獨의 66.5%, 이탈리아의 65.9%, 英國의 65.4% 보다도 약간 높고, 프랑스의 62%, 美國의 59.8% 보다는 상당히 높고, 그리고 印度의 55.9%, 인도네시아의 55.3%, 中國의 51.6% 보다는 훨씬 높다. 老年人口에서는 歐美 各國이 10% 前後로 가장 높고, 다음이 日本의 6.3%, 그리고 印度, 인도네시아, 中國은 각각 3.1%, 2.6%, 2.5%로 가장 낮다.

以上の 數値가 의미하는 것은 첫째, 低開發國은 先進國에 比하여 보다 적은 生産年齡人口 즉 經濟活動人口(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가 보다 많은 非生産的人口 즉 從屬人口를 扶養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과, 둘째로 人口의 年齡構造에 직접 影響을 주는 가장 큰 要因은 出生率의 變化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연하면, 위의 表에서 日本의 경우를 보면 出生率의 低下로 因하여 少年人口에 있어서는 그 比率이 유럽 各國에 接近하고 있고, 過去의 高出生率로 因하여 生産年齡人口의 比率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死亡率은 改善되었지만, 低出生率의

第6表 各國 人口의 年齡 構造 (單位: %)

國 名	0—14 歲	15—64 歲	65 歲 以上
西 獨	22.4	66.5	11.1
英 國	22.6	65.4	12.0
이 탈 리 아	24.5	65.9	9.6
프 랑 스	26.2	62.0	11.8
濠 洲	29.9	61.7	8.5
美 國	30.9	59.8	9.3
카 나 다	33.6	58.7	7.6
印 度	41.0	55.9	3.1
인 도 네 시 아	42.1	55.3	2.6
中 國 (臺 灣)	45.9	51.6	2.5
日 本	25.6	68.1	6.3

Source: 日本 總理府 統計局 『わが國の人口』 1967. p 39.

影響은 아직 이 階層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老年人口의 比率은 印度, 인도네시아, 中國 보다는 높지만 歐美 諸國보다는 낮다. 이와같은 現象은 過去의 高出生率에 대한 現在의 低出生率이라는 出生率變化의 狀態에서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의 Staley의 見解와 同一한 見解를 갖는 論者로서는 또한 Rangnekar를 들 수 있다. 그는 급속한 人口增加가 經濟發展을 阻止하게 된다는 點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指摘하였다. 첫째, 人口의 增加는 1人當 所得의 增大에 必要한 資本所要額高를 引上시킨다. 둘째, 人口의 增加는 消費財의 需要를 增加시킴으로써 貯蓄과 投資의 比率을 低下시킨다. 셋째, 人口의 增加는 失業救濟를 위하여 利用될 資本量을 減少시키고 失業問題를 重大化시킨다.<sup>49</sup> 이러한 主張은, 出生率의 低下에 의한 人口增加의 抑制라는 이른바 新말사스主義의 人口對策의 必要性을 強調하게 된다. 다만 古典學派의 開發論者인 Viner는 人口增加의 經濟發展에 미치는 影響에 대하여는 Staley나 Rangnekar와 見解를 같이 하지만, 人口對策의 分野에 이르러서는 그들과는 全然 달리 悲觀的 見解를 主張한다. 즉 Viner는 低開發國의 人口問題에 대하여는, 安易하고 確實한 救濟策은 바랄 수 없다하여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大部分의 社會學者에게 唯一의 有望한 救濟策이라 생각되어지는 産兒制限도 널리 普及되고 效果를 거두기 위하여는 相當히 높은 教育 및 所得水準을 必要로하고, 또 道德的·宗教的인 理由로 因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強하게 反對를 받고 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나 또는 政府는 이와같은 點에 問題가 있는 것을 認定치 않든가, 또는 비록 그것을 認定한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問題에 對決하여 救濟策을 求하고자 하지도 않는다. 歷史的 經驗과 理論의 分析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1人當 所得과 教育이 高水準에 도달하는 것이 이 問題의 解決에 必須不可缺의 條件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人口의 過度한 增加率 그 自體가 이 必須條件의 充足에 대하여 가장 重要한 障害物로 되어 있는 것이 人口問題의 패라독스(paradox)이다.」<sup>50</sup> 즉 Viner에 의하면, 新말사스主義의 人口對策은, 低所得과 文盲을 特徵으로 하는 低開發國에서는 實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現實의 급속한 人口增加는 加一層 産兒制限의 實施를 困難케 한다고 하여, 形式的인 産兒制限策을 主張하는 論者들을 날카롭게 批判하고 있다.

以上에서 紹介한 見解와는 달리, 급속한 人口增加가 低開發國의 經濟發展을 必然的으로 阻止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Singer의 見解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Singer는, 人口의 增加가 資本形成에 대하여 마이너스의 要因이라 간주하지만 한편 다음과 같은 네 가지 利點을 指摘한다. 첫째, 追加勞動은 追加資本없이도 비록 比例的은 아니라 할지언정 현저한 產出高의 增加를 야기시킨다. 둘째, 技術的 進歩는 資本의 增加없이도 產出高를 增加시킬 수 있는데, 人口增加는 바로 이와같은 技術的 進歩를 刺戟한다. 셋째, 人口增加는 外部經濟(external

註 49 D.K. Rangnekar, *Poverty and Capital Development in India* 1958, p.279.

50 J. Viner,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1953, p.118.

economies)<sup>51</sup>를 創造한다. 넷째, 外國資本을 利用할 可能性이 存在하므로, 人口增加는 勞動力으로 吸收될 수 있다. 이와같은 利點을 들어 Singer 는 人口增加가 經濟發展을 阻止하는 決定的인 障害라 보는 見解를 批判하고 있다<sup>52</sup>.

Bonne 도 또한 그의 獨自의인 立場에서 Staley 의 見解를 批判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Staley 는 말사스의 偏見에 입각하여 人口增加의 影響을 高찰하고 있다 한다. 즉 經濟發展에 必要한 資本所要額의 推定에 입각해서, 人口增加의 經濟成長에 미치는 影響을 捕捉하고 있는 點을 그는 다음과 같이 批判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觀察者는 低開發國에서의 人口成長의 諸影響을 말사스의 偏見에서 高찰하고, 그들의 見解를 資本問題에 適用시키고 있다. 一般의으로 資本所要額의 推定에 의하면, 1人當 產出高를 增加시키는데 必要한 資本形成率은 貯蓄率을 上廻하는 일이지만, 消費水準의 實質的인 上昇을 可能케하는 것과 같은 貯蓄率을 低開發國에 期待할 수는 없다. 以上の 推論은 1人當 產出高의 潛在的 趨勢 및 그 水準을 人口의 增加率과의 關係에서 高찰하고 있는 셈이다.<sup>53</sup>

이와같은 一般的인 推論의 要旨를 紹介한 다음, Bonne 는 그 推論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痛烈히 批判을 加하고 있다. 즉 「이 推論은 先進國에서는 可能할 수 있지만, 低開發國에서의 人口成長과 經濟的 遂行과의 關係를 正確한 資料나 方程式으로 表現하고자 하는 企圖은 必然的으로 큰 困難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低開發國의 發展樣相을 研究하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發見하는 것처럼, 1人當 產出高水準은 여러가지 變數(variable)에 의존하고 있는 극히 복잡한 現象으로서, 資本形成은 단지 그 一部分에 不過하기 때문이다. 만약, 人口와 勞動力만이 成長하고 다른 生産條件이나 諸要因은 不變이라 하면, 1人當 所得이 低下한다는 結論은 正當하지만, 그러나 그와같은 一面的인 狀態만의 假定은 誤謬이다. 따라서 以上の 推論이나 方程式은 妥當性을 갖지 못한다.」<sup>54</sup>

이 以外에 人口의 增加가 經濟發展에 대하여 障害가 되긴 하지만, 適當한 人口對策을 採用하기만 하면 이와같은 人口增加는 오히려 經濟發展에 대하여 플라스的 要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見解가 있다. Nurkse 의 見解가 바로 이에 該當된다. 그에 의하면, 「약간의 人口增加는 醫學的 知識이나 醫療施設의 普及과 그 結果로 因한 罹病率 또는 死亡率의 減少에 의하여, 消費水準과는 아무 關係없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이와같은 것은 人口의 增加와 더

註 51 Marshall 이 使用한 術語로, 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였다. 「어떠한 種類의 財貨에 대하여도, 그 生産規模가 擴大됨으로써 發生하는 節約을 두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하나는 그 企業이 屬하는 產業全體의 發展에 의하여 招來되는 節約이고, 다른 하나는 그 產業에 屬하는 각 企業의 方策 즉 企業自體의 組織과 經營能率에 의존하는 節約이다. 前者를 外部節約(또는 外部經濟), 後者를 內部節約(또는 內部經濟, internal economies)라 부른다.」 A.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 1925.

52 H. W. Singer, *Problems of Industrialization of Underdeveloped Countries*, pp.221~223.

53 A. Bonne, *Studies in Economic Development*, 1957, p.232.

54 *Ibid.*, p.233.

불어 그素質의 向上도 의미한다. 肉體的 健康이나 精力의 增進과 더불어 生産能力도 또한 增加하게 된다. 增大된 人口의 潛在的 生産力이 充分히 利用되는 限, 틀림없이 그것은 經濟的으로 보아 不利하게 되는 要因일 수는 없다.」<sup>53</sup>고 하여 人口增加의 積極的인 側面을 指摘하였다. Buchanan 과 Ellis도 이와 同一한 見解를 피력하고 있다. 즉 「保健衛生狀態가 改善되면 死亡率이 減少할 뿐만 아니라, 生産要素의 하나인 勞動의 供給狀態도 改善될 것이다. 이와같은 生産能率의 向上이 人口의 增加와 充分히 均衡을 取하기만 하면, 悲觀論者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悲慘한 狀態를 招來하지는 않을 것이다.」<sup>54</sup>라 하여 人口의 增加가 經濟發展에 미치는 마이너스의 效果를 決定的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UN 報告書는 위의 Staley의 見解와 Singer의 見解를 同時에 認定한 包括的인 意見을 表示하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人口增加가 經濟開發에 미치는 影響을 세가지로 區分하고, 첫번째의 케이스는 生活水準을 引上하는 경우, 두번째의 케이스는 生活水準에 아무 變化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 세번째의 케이스는 生活水準의 低下를 야기시키는 경우로 分類하고 있다. 첫번째의 경우는 工業發展에 必要한 資源이 既存의 人口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풍부하게 存在하는 나라에 限해서만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나라에 屬하는 低開發國이 現實的으로 적지않다고 본다. 이에 反하여 資源이 稀薄하고, 그리고 過剩人口를 위하여 利用될 수 있는 資本이 그 社會의 貯蓄에 의하여만 形成되는 경우, 人口의 增加는 마이너스의 役割을 한다고 본다. 이와같은 UN 報告書의 見解는 前記의 두가지 見解를 包括하고 있는 셈이다.<sup>55</sup>

以上에서 人口成長率의 問題를 中心으로하여 Staley와 Singer의 見解를 對照하면서, 代表的인 몇名의 開發論者의 見解를 고찰하였다. 要컨대, 이들 諸見解의 共通點은 人口의 급속한 增加自體가 低開發國의 經濟開發에 대하여 마이너스의 要因으로 作用하는 一面이 있다는 點에 있다. 그리고 그와같은 思考의 밑바닥에는 一般的으로 低開發國의 經濟開發을 阻止하는 가장 큰 要因으로 資本不足이라 보는 見解가 潜在해 있다. 따라서 資本蓄積이 貧弱한 低開發國에 있어서 解決하여야 될 중요한 課題중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높은 人口增加率을 抑制하는가 하는 點이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低開發國의 人口增加率 增大의 原因은 一般的으로 死亡率의 減少와 높은 出生率과의 罅(gap)에서 發生하므로, 後進國 開發論者들은 人口增加 抑制의 手段으로서 産兒制限에 의한 出生力抑制를 強力히 主張한다. 이와같은 人口對策의 主張은 물론 新말사스主義의 內容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新말사스主義의 內容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周知하는 바와 같이 産兒調節에 의한 出生力抑制는 그 社會的·政治的·經濟的 條件의 差異

註 53 R. Nurkse, *op. cit.*, p.48, 前掲書 p.73.

54 Norman S. Buchanan and Howard S. Ellis, *Approaches to Economic Development*, 1955, p.116.

55 U.N., *op. cit.*, p.46.



에도不拘하고, 오늘날 거의 모든 先進國과 後進國을 통해서 널리 是認받고 있는 人口學의 行動이다. 그러나 出生力抑制는 社會的・經濟的 行動에 대한 抑制와는 달리, 人間自體의 再生産이라는 個人의 行爲에 대한 抑制인 만큼, 그 妥當性を 認定받기 까지에는 많은 障害가 가로 놓여 있었다. 이와같은 人口의 再生産에 대한 意識的인 抑制의 可能性과 必要성을 널리 促進시킬 수 있는 母胎가 된 것이 바로 新말사스主義(Neo-Malthusianism)의 思想이다. 그러나 新말사스主義는 産兒調節이나 避妊이라는 出生力制限行爲 그 自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人爲的인 産兒調節이라는 行爲는 自古로 있어 왔던 것으로, 決코 近代의 産物은 아니기 때문이다. 新말사스主義의 基本的 特徵은, 이미 論한 Malthus의 人口原理를 前提로 하는 하나의 社會改良運動 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Malthus의 이른바 「道德的 抑制」는 극히 非現實的이고 도저히 期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早期結婚을 是認하면서 結婚生活에 있어서의 産兒調節을 主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社會의 改善과 進歩가 充分히 可能하다는 것을 立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根本的으로는 Malthus의 人口原理를 是認하는 것이기 때문에, 産兒調節運動을 展開한 사람들 스스로가 말사스主義者라 自稱하였던 것도 當然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Malthus 自身은 産兒調節에 否定的인 態度를 取하였던 事實은, 그의 宗教的 背景에서 미루어 보아도 當然한 것으로, 이 點에 있어서 産兒調節運動을 正面에서 取扱한 社會改良運動家들을 Malthus와 區別하여 新말사스主義者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Malthus의 「道德的抑制」에 대신하여 避妊手段에 의한 産兒調節을 主張한 新말사스主義運動은 1822年 Francis Place(1771~1854)의 著書『人口原理의 論證』<sup>8)</sup> 刊行以來 第1次世界大戰까지의 約 1世紀동안 社會改良運動으로서 西歐에서 활발히 展開되었다. (Mill의 父子 James & J.S. Mill도 同一한 主張者였음). 그러나 新말사스主義運動은 단지 産兒調節이 社會的으로, 經濟的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는 點만을 強調하고, 따라서 産兒調節의 醫學的・技術的인 側面에 대한 啓蒙活動은 第2次的인 關心事로 看做함에 그쳤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新말사스主義에 있어서는 産兒調節의 醫學的 側面이나 公衆衛生에 대한 啓蒙活動은 거의 행해지지 않고, 主로 말사스의 人口增加에 대한 抑制的인 政策論에만 重點을 두었다. 여하튼간에 新말사스主義의 思想과 運動은 항상 政府, 教會, 道德論者, 社會主義者 등의 壓迫 내지 批難을 받으면서도 점차로 社會의 各階 各層에 浸透하여 先進國의 出生率을 크게 減少시키게 되었다. 특히 그 傾向은 20世紀에 들어와서 加一層 強化되어, 마침내 人口의 純再生産率이 1以下로까지 떨어지게 되고, 마침내 人口의 減少 내지 消滅의 危險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新말사스主義運動은 적어도 先進國에 관한 限 그 使命을 充分히 達成한 셈으로, 그 母

註 8) F. Place, *Illustrations and Proofs of the Principle of Population; including an Examination of the Proposed Remedies of Mr. Malthus, and a Reply to the Objections of Mr. Godwin and others*, 1822.

胎인 말사스主義와 더불어 存在의 意味를 거의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비록 人口對策으로서의 意味를 상실하였다 할지언정, 出生力抑制라는 手段 그 自體는 새로운 標榜 밑에 別途의 目的을 가지고 또다시 舞臺위에 나타나게 되었다. 家族計劃(family planning) 이 바로 그 것이다.

家族計劃은 一國의 人口가 過剩이건 아니건 간에 社會에는 多産에 의한 悲慘과 不幸이 存在한다는 事實의 認識 밑에 出産의 頻度 및 間隔을 調整하는 것에 의하여 家庭生活의 幸福을 實現하고자 하는 運動을 의미한다. 이 家族計劃運動은 第1次世界大戰以後에 發展을 보게 된 것으로 그 先驅者로서 Margaret Sanger 女史는 너무나도 有名하다. 그런데 家族計劃運動은 사실 人口問題와는 直接的으로 아무 關係도 없다. 아무리 富裕한 社會에서도 貧困한 家庭이 存在하고 그리고 그것은 多産에 의하여 더욱 더 貧困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經濟的으로 富裕한 家庭에서도 多産은 母體의 健康에 害롭고 또 婦人의 解放이나 子女의 教育 등의 觀點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그러므로 家族計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一般的으로 規定하기가 困難하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期待할 수 있는 結果가 以上에서 言及한 것처럼 여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中에서 어느 것을 目的으로 하는가는 個個의 경우에 서로 다르다. 貧困한 家族에 대하여는 貧困對策이, 富裕한 家庭에 대하여는 醫學的 또는 文化的 對策이, 그리고 過剩人口國에 대하여는 人口對策이 必要하다. 그 어느 點에서도 이것을 必要로 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에 家族計劃運動은 必要에 따라 이들 全部를 目的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中의 어느 하나에만 局限할 수도 있다. 이와같은 自由自在性은 家族計劃運動의 推進에 극히 有利하지만, 때로는 그 目的이 誤解되어 뜻밖의 反對에 부딪칠 危險도 적지 않다. 특히 그것은 아직도 말사스主義와 直結되어 있다는 誤解를 받기 쉽고, 따라서 말사스主義를 排擊하고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그 普及이 상당히 阻止고되 있다.

新말사스主義와 家族計劃은 이처럼 그 性格에 있어서는 相異하지만, 目的을 實現하는 手段은 同一하다. 즉 그 手段이란 要컨대 出生力을 人爲的으로 抑制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內容은 複雜多岐하다. 出生力抑制手段으로서의 Malthus가 主張한 道德的 抑制 즉 結婚延期 등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미 말한 바와같이 新말사스主義의 手段으로서는 理論上 適合치 않다. 왜냐하면 新말사스主義는 그것에 대한 反動으로서 發生하였기 때문이다. 또 그것(즉 道德的抑制)은 家族計劃에 대하여도 問題밖의 일이다. 왜냐하면 家族計劃은 結婚後의 夫婦間의 問題이지 結婚前의 問題는 아니기 때문이다. 出生力抑制의 其他의 方法으로서는 一般的으로 避妊(受胎調節), 人工妊娠中絶(落胎) 및 斷種의 세가지가 있다. 이들 諸方法은 效果, 價格, 用法에 있어서 相異할 뿐만 아니라, 나라에 따라 法律上의 取扱도 서로 다르다. 하나의 社會改良運動으로서 出生力抑制를 推進함에 즈음해서 違法의 手段을 강구할 수는 없으므로 新말사스主義이건, 家族計劃의건, 그 內容이 각 國家間에 반드시 一致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음에 家族計劃運動의 實例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1920年代의 美國의 醫學會는 避妊과 優生學(eugenics)을 支持하고 올바른 避妊方法에 의하여 公衆衛生을 促進할 醫師의 責任과 個人의 健康이나 優生保護라는 社會醫學的인 立場에서, 個人 특히 貧困者의 出生力制限의 權利와 義務를 強調하였던 것이다. 1921年 Sanger 女史에 의하여 創設된 美國產兒調節聯盟(American Birth Control League)은, 1923년에 뉴욕產兒調節診療研究所(New York Birth Control Clinical Research Bureau)를 開設하고 그 實踐運動을 擴大해 갔다. 그後 計劃的 生産에 의한 個人 또는 家族의 福祉向上을 直接目的으로 하는 運動이 展開되어, 1942년에는 마침내 그 名稱도 美國計劃家族聯盟(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라 改稱되고, 美全域에 걸쳐서 積極的인 活動을 展開하게 되었다. 英國에서는 1930년에 家族計劃協會(The Family Planning Association)가 發足하여 活潑한 活動을 開始하였다. 한편 家族計劃運動에 있어서의 國際的인 協力도 점차로 활발히 進行되었다. 특히 第2次大戰後에 있어서는 1948년에 國際計劃家族委員會(International Committee on Planned Parenthood)가 런던에 設立되고 그後 1952年の Bombay 會議에서 이 委員會(ICPP)는 國際計劃家族聯盟(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IPPF)으로 改稱되게 되었다.

要컨대 Malthus는 人間의 努力에 의하여 人口의 過剩化를 防止하여야 되고, 또 防止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道德的 抑制를 의미하였는데, 그것이 新말사스主義에 이르러서는 避妊 其他의 形態로 代置되게 되었음에 不過하다. 이리하여 1870年代 以後의 급격한 出生率低下는 말사스主義의 結果라 할 수 있고, 이 出生率低下는 經濟의 飛躍的 發展과 社會保障 또는 勞動組合의 發達과 더불어 一般大衆의 生活水準을 크게 向上시키게 되었다. 新말사스主義의 普及은 나라에 따라서는 必要限度를 넘어서게 되어, 將來人口에 대한 念慮에서 오히려 強力한 人口增加政策을 採擇하기까지 되었다. 프랑스같은 나라가 하나의 좋은 例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先進自由主義諸國의 人口動態는 모두 少産・少死의 近代型으로 人口增加를 특히 意識的으로 抑制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나라는 거의 없다. 바꾸어 말하면 新말사스主義를 從來의 方式으로 그대로 推進할 必要는 없게 된 셈이고, 이러한 事實은 오늘날 이들 나라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家族計劃의 性格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미 論한 바와 같이 家族計劃이 新말사스主義로부터 派生한 것은 事實이지만, 거기에는 이미 過剩人口對策의 意味는 거의 또는 전혀 없다. 그것은 妊娠 및 出産의 間隔과 頻度を 調整하는 것에 의하여 母體의 保護, 女性의 解放 또는 家計의 健全化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必要性은 人口의 過不足과는 전혀 相關없다. 家族計劃은 말하자면 近代生活의 當然한 흐름에 不過하므로 人口增加를 希望하는 나라에서조차도 時間의 經過와 더불어 각 階層에 浸透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以上에서 言及한 內容은 主로 人口壓力이 없는 先進諸國에 該當되는 것으로 人口過剩에 허덕이고 있는 低開發諸國에 있어서는 事情은 이와 전혀 다르다. 더욱이 이

들 低開發國은 世界의 大部分을 占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른바 「말사스의 陷穽」이 심각한 現象으로 나타나고 있다. 多産・多死의 型으로 겨우 均衡을 維持할 수 있었던 低開發國도 發達한 醫藥의 流入에 의하여 死亡率은 激減하고, 한편 出生率은 계속해서 높은 水準에 머물러 있으므로 爆發的인 人口增加에 壓倒되어 있는 것이 一般的인 實情이다. 經濟開發을 위하여 각각의 低開發國은 모든 精力을 傾注하고 있고, 또 先進國으로부터의 莫大한 援助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別로 큰 成果를 거둘 수 없는 것은 여러가지 原因은 있겠지만, 그 가장 큰 原因은 아마도 加重되는 人口壓力일 것이다. 그러므로 低開發國에서의 家族計劃은 先進國에서의 그것과는 달리, 그 意圖하는 目的은 分明히 出生力抑制에 있고 家庭生活의 健全化내지 合理化 등은 附帶的 口實에 不過하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分明히 新말사스主義의 人口政策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本來의 意味에 있어서의 家族計劃과는 本質的으로 相異하다. 그러면서도 이들 政策이 계속해서 家族計劃의 名稱을 붙이는 것은, 결국 이 두가지가(즉 新말사스主義와 家族計劃) 目的은 相異하여도 方法 그 自體는 大差가 없으므로, 그 方法을 普及하기만 하면 한나라의 出生率 引下라는 政策上의 目的도 達成할 수 있고, 그리고 한걸음 나아가서 反感을 불러 일으키기 쉬운 「말사스主義」라는 用語를 回避함으로써, 그 運動의 圓滑化를 期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大部分의 低開發國에서는 家族計劃協會 또는 聯盟이 結成되어, 家族計劃의 推進은 經濟開發計劃의 主要項目의 하나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1年 大韓家族協會가 發足하여, 家族計劃事業은 國家施策의 一環으로 採擇되게 되었으며, 특히 翌年인 1962년에는 政府의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着手과 더불어, 人口增加率의 低下를 目標로 그 事業도 本格的인 活動을 開始하게 되었다. 同協會 發足前年인 1960年の 센서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年間 人口增加率は 約 3%였는데, 政府는 第1次 5個年計劃期間(1962~66)의 最終年度인 1966년까지는 年間人口增加率을 2.7%로, 그리고 第2次 5個年計劃期間(1967~71)의 最終年度인 1971년까지는 2.0%로 低下시키고자 目標率을 設定하였다. 1970年の 센서스에 의하면 年間 人口增加率은 1.9% 以下로 低下되었고, 이와같은 趨勢로 계속 나아가면 第3次 5個年計劃期間(1972~76)의 最終年度인 1976년까지에는 目標率인 1.5%의 增加率이 達成될 수 있을 것이라는 展望이다.

생각컨대, 低開發國의 經濟開發이 國際的 協力 내지 援助없이 達成될 수 없는 것은 明白한 것으로, 그것은 主로 資本投下, 技術援助 또는 原料購買 등의 方式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低開發國의 根本的 隘路가 격심한 人口增加에 있다고 한다면, 人口對策의 樹立과 遂行에 있어서도 先進國의 協力과 援助가 또한 要請되지 않을 수 없다. 1959年 美國의 上院對外關係委員會(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는 低開發國에 있어서의 産兒制限의 大規模的인 테스트를 援助할 意思를 表示하였고, 1963年の 아시아人口會議에서도 積極的인 家族計劃의 必要性을 主張하였다. UN의 活動에 있어서도 맨 처음에는 人口政策이나 家族

計劃은 타부(taboo)視 하였으나, 國聯·世界保健機構(World Health Organization)는 1965年 5月の 總會에서 家族計劃關係의 研究에 대하여 技術援助를 부여할 것을 正式으로 認定하였다. 이처럼 家族計劃의 必要性이 UN에 의하여 認定받게 된 것은 重大한 事實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은 計劃 또는 措處에 대하여 카톨릭은 날카로운 反對를 表明하였다. 카톨릭은 말사스主義에 대한 反對를 分明히 하고, 低開發國의 人口問題는 人口의 抑制가 아니라 食糧의 供給增大에 의하여 解決되어야 한다는 主張 밑에, 援助資金을 家族計劃과 같은 事業에 充當하고자 하는 一切의 企圖에 反對意思를 表明하였다. 出生力抑制에 대한 카톨릭의 強硬한 反對는, 當然히 人口主義(人口增加가 바람직하다는 思想)와 關聯되지 않을 수 없다. 카톨릭의 主張에 의하면, 世界의 많은 地域에 있어서의 人口壓力의 事實을 認定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오히려 眞正한 國際的 協調를 가져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의 表現이라 본다. 즉 世界의 人口扶養의 潜在力은 無限한 것으로, 資本, 技術, 勞動力의 國際的 相互扶助 내지 交流에 의하여 그것은 充分히 開發될 수 있다 하고, 따라서 移住 내지 移民은 카톨릭시즘에 있어서의 가장 有力한 人口對策으로 간주되고 있다. 카톨릭시즘은 結婚의 第一義의 目的을 子孫의 永續에 求하고 있으므로, 人爲的인 出生力抑制에 대하여는 自然에 대한 重大한 背反이라 본다.

이에 대하여 프로테스탄트는 産兒制限을 支持하는 態度를 表示하고 있다. 프로테스탄트도 맨 처음에는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産兒制限을 反對하였으나, 그 以後 점차로 見解를 바꾸어 오늘날에 와서는 이를 全面的으로 支持하는 態度를 取하게 되었다. 즉 美國에 있어서의 最大의 프로테스탄트組織인 NCC(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는, 1961年 2月 家族計劃을 正當한 行爲라 宣言하고, 産兒制限을 反對하고 있는 從來의 法律 및 制度에 대한 反對決議를 行하였다. NCC는 다음과 같이 宣言하고 있다. 「프로테스탄트의 大部分의 教會는 受胎調節과 定期禁慾法은 그 動機만 正當하다면 道德的으로 正當하다고 確信한다. 一般 프로테스탄트의 信念은 手段이 限定되어 있는 限, 道德的으로 가장 重要한 것은 그 手段이 아니라 動機에 있다는 點이다.」 이리하여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은 이 問題에 관하여는 극히 對立된 見解를 갖고 있는 셈이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잠시동안 基督教의 結婚, 離婚 및 獨身生活에 대한 見解를 살펴 보기로 하자. 新約聖書 마태福音에 의하면,

「바리새파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조물주가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들이 예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

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해 주었으나,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그 사람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sup>㉞</sup>

이 말씀에 의하면 現世에서의 結婚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이다. 따라서 淫行한 까닭의 離婚은 惡이라는 見解이다. 이와같이 結婚을 神意에 의거한 男女의 合體라 보는 예수 의 가르침은, 비록 聖職者라 할지언정 生涯를 獨身으로 보내야 된다는 理由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들이 新約聖書를 좀 더 注意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使徒들은 이 問題로 因하여 크게 苦惱한 것 같고, 結婚은 神聖하지만 그러나 結局은 獨身生活이 보다 더 神聖하다는 見解에 도달한 것 같이 생각된다. 使徒바울의 書翰文 고린도前書의 몇 句節을 引用키로 한다.

「이제 여러분이 적어 보낸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sup>㉟</sup>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과부에 관하여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으로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sup>㊱</sup>

「나는 여러분이 걱정 근심에 놀려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데 관심을 두지만, 결혼한 남자는 세상일을 염려하며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는데 관심이 쏠려서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나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이 함께 거룩하게 되려고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일을 염려하며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sup>㊲</sup>

聖書의 이와같은 몇 句節을 생각해 보면, 一般 信徒사이에서는 어떻든간에 信仰生活을 보다 더 철저히 하고자 하는 者는 獨身生活을 높이 評價하는 風潮가 발생하여 獨身の 神父나 修女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이와같은 教義에 대하여 結婚生活의 神聖을 主張한 者는 近世의 宗教改革家 Martin Luther 였다.

이들 問題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間의 見解差異는 여하튼간에 오늘날 先進國에 있어서는 低開發國에 比하여 家族計劃이 훨씬 잘 普及되어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렇다고 해서 家族計劃運動은 低開發國에 대해서만 必要하고, 先進國에 대해서는 必要치 않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先進國에서 行해지고 있는 家族計劃은 도저히 健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非法의 人工妊娠中絶이 行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先進國에서

註 ㉞ 마태복음, 19장 3~9절.

㉟ 고린도前書, 7장 1~2절.

㊱ 前揭書, 7장 8~9절.

㊲ 前揭書, 7장 32~34절.

도 健全한 家族計劃이 絶실히 要請되지 않을 수 없다. 健全치 못한 家族計劃(예컨대 落胎)이 先進國과 後進國을 不問하고 全世界의으로 流行하기 시작한 것은 1950年代이고 그리고 世界의 人口數가 史上 未曾有의 速度를 가지고 增加하기 시작한 것도 또한 이 時期라는 것을 생각하면(이미 말한 바와 같이 第2次大戰以後 특히 低開發國에서 人口增加의 動向이 從來의 多産・多死型에서 多産・小死型으로 變化하였기 때문에 급격한 人口增加가 이루어졌음), 家族計劃運動은 앞으로 중요한 役割을 수행하여야만 될 것을 示唆하고 있다. 이와 같은 世界史的인 事實을 背景으로 하여 個人 또는 家庭의 福祉向上과 出生力抑制라는 相異한 두개의 役割을 同時에 負擔하게 된 低開發國에서의 家族計劃運動은 理論的으로나 實際的으로나 重大한 轉換點에 놓여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VI. 結 語

第2次大戰以後, 많은 低開發國은 死亡率引下에는 容易하게 成功하였지만, 出生率은 從前과 變함 없이 높은 狀態에 머물러 있었다. 그 結果, 人口는 激增하여 經濟開發을 위하여 莫大한 投資가 이루어 졌어도 그 大部分이 增加된 人口에 消費되어버려, 低開發國의 投資는 결국 「人口投資」에 끝난 셈이 되었다. 經濟開發은 크게 進陟되지는 못하고, 한편 人口는 以前보다 훨씬 많이 增加하여, 低開發國의 苦惱은 倍加하게 되었다.

低開發國에 經濟援助를 행한 先進諸國도 投資를 행하면, 人口는 그들의 경우처럼 自動的으로 靜止狀態에 도달할 것이라 漠然히 期待하고 있었던 만큼, 이와같은 뜻밖의 事態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人口는 經濟의 函數가 아니라는 것을 低開發國은 다시 한번 立證하였다. 그러므로 低開發國에서는, Keynes 나 Hansen 에 의하여 主張된 것과 같은 人口成長의 플라스의인 面이 妥當性을 認定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點에 대하여 Coale 과 Hoover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록, 低所得經濟下에서도 有効需要의 不足이 經濟成長의 障害物로 된다는 것을 認定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와같은 狀態下에서는 급속한 人口增加가 經濟成長에 대한 主要한 刺戟劑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低所得經濟下에서는 많은 人間을 높은 水準의 消費支出 또는 收益取得으로 誘導할 餘하한 方法도 없기 때문이다. 많은 家族들은 自己들의 消費支出를 擴大할 수는 없고 도리어 大多數를 比참할 程度의 所得水準으로 抑壓하게 할지 모른다. 바꾸어 말하면, 급증하는 人口는 低所得經濟下에서는 消費函數에 대하여도, 資本의 限界效率에 대하여도 거의 影響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sup>6)</sup>

이와같은 理由에서, 低開發國은 Malthus 의 思想을 넘어서, 단숨에 人口抑制에 直接的인 効

註 6) A. J. Coale and E. M. Hoover,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in Low-Income Countries; A Case Study of India's Prospects.*, 1958, p.21.

과를 갖는 新달사스主義에 突進하였다. 처음에는 經濟가 發展하면, 人口增加는 自動적으로 停止한다는 思考에서부터, 이번에는 經濟開發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人口를 人爲적으로 抑制하여야 된다는 思考으로 轉換하였다. 이리하여 Malthus의 名稱이 붙은 新달사스主義나 家族計劃은 마치 低開發國 救濟의 直効藥처럼 登場하게 되었다.

그러나 Malthus는 그의 生存時, 시중 人爲的인 人口抑制措處, 예컨대 産兒調節——이와같은 것은 新달사스主義나 家族計劃의 경우에는 흔히 行해지는 것이지만——에는 反對意見을 表示하였었다. 만약에 오늘날 Malthus가 生存하고 있다 假定하면, 그는 현재 低開發國에서 行해지고 있는 不妊手術과 같은 人爲的 抑制措處에는 強力히 反對하고, 오히려 結婚年齡의 引上和 같은 社會的 措處를 要望할 것이 틀림 없다. 다시 말하면, 그는 早期結婚의 禁止, 早婚을 獎勵하는 社會制度의 改善, 教育의 普及, 技術訓練, 大家族制로부터 小家族制로의 轉換措處等, 이른바 社會開發이 經濟開發에 앞서서 또는 적어도 經濟開發과 併行해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呼訴할 것이다.

사실 最近 UN에 있어서도 經濟開發을 위하여 社會開發이 必須不可缺의 것이라 認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點이 바로 Malthus가 意圖하고 있는 것에 틀림없다. 그러나 社會開發 또한 經濟開發의 進展을 前提로 하고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點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와같은 意味에서 經濟開發과 社會開發은 同時併行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點에 低開發國의 人口問題의 困難性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過剩人口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韓國도 人口問題의 解決途上에 있어서, 이와같은 低開發國에 特徵的인 “困難性”으로부터 例外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社會開發과 經濟開發의 同時 併行이라는 “困難性”을 甘受하고, 나아가서 이를 克服하도록 最善의 方法과 最大의 努力을 도모하고 힘써야만 된다.